

희망

늘푸른장학회 소식지

Vol. 2 AUGUST 2013



늘푸른장학회
EVER GREEN YOUTH & PEACE SCHOLARSHIP



詩로 하루를 연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 내린다.

괴로움에 이어서 찾아오는 기쁨을 나는 또 알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리렴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두손 마주잡고 얼굴 대하면 다리아래 지친듯
흘러가는 영원의 물결이여.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리렴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사랑은 물결처럼 흘러 내리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 내린다.
인생이란 이토록 더디고 보람만이 속절없이 뺏겼구나.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리렴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무심한 세월만 흘러가는데
우리들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고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만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도 울리렴. 세월은 흐르고 나는 머문다.

화가 · 시인 - 마리 로랑생

CONTENTS

늘푸른장학회 소식지 AUGUST 2013 Vol. 2

희망



발행일 _ 2013. 8. 14

발행처 _ 늘푸른장학회

주 소 _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2번지 팍스빌딩 2층

홈페이지 _ <http://cafe.daum.net/pusan.apmp>

편집인 _ 기획홍보이사 이상진

편집·인쇄 _ 디자인 주 051.441.2692

인사말씀

- 04 격려사
- 05 격려사
- 06 인사말

후원 및 장학행사

- 08 제2차 해외장학사업
- 10 필리핀 세부 마야의 봉사활동
- 12 위드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공부방·화장실 건립 봉사
- 13 캄보디아 '구호현장 방문'
- 14 기독교체의 사회봉사활동과 늘푸른장학회의 봉사활동
- 16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전달

기행 및 워크숍

- 17 감람산
- 18 제1회 합동산행대회
- 20 제2회 워크숍 및 임시결과보고

장학금 전달

- 22 장학금 선발
- 23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행사소식

- 30 사랑나눔 사랑 동참
- 31 늘푸른장학회 행사일지
- 32 사진으로보는 늘푸른의 이모저모

회원님 글

- 34 그 아버지에 그 아들
- 36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아내
- 38 작은나눔 큰기쁨
- 39 기부문화는 부자들의 권리인가? 시민들의 의무인가?
- 40 히말라야!

경과보고

- 44 회칙개정안
- 46 정기총회
- 52 관리대장

후원광고

- 57 후원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화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와 나눔이 있는 늘푸른장학회

금정구청장 _ 원 정 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회 운영위원인 금정구청장 원정희입니다. 무더위가 제철을 만나 열기를 뿜어내는 여름이네요.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봉사의 일념으로 창립한 늘푸른장학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활발하게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늘푸른장학회가 있기까지 장학회 창립에 주춧돌을 놓아 주시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조용현 회장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사업에 기꺼이 참여하여 주시고 봉사를 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늘푸른장학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인류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화장실 건립 공사와 구호품 전달에 이어 올해에도 필리핀 세부 마야 마을 의료봉사 활동과 기술전문대학 교육 실습용 선박엔지니어링 기증으로 해외 장학 봉사사업을 하였으며, 금정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지원, 부곡BMC아파트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비롯하여 부산대학교 학생 장학금 전달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 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화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와 나눔으로 더 큰 채움을 일궈가는 늘푸른장학회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베품과 나눔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실천하는 봉사와 함께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봉사는 베품과 나눔을 통해 인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해주는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입니다. “부와 명예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진리이며 가장 감동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며, 베풀고 나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모아 가꾸어 가는 늘푸른장학회가 인류봉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늘푸른장학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뜨거운 열정은 활화산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지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주는 봉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무쪼록 늘푸른장학회가 장학사업을 통한 인류봉사의 늘푸른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끊임없는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늘푸른 장학회의 두 번째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늘푸른장학회 상임고문 _ 김 호 정



장학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18명의 부산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며칠 후면 제5회 장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작년의 김장 김치 전달에 이어 올해는 장애인 복지관에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빈민구호 사업을 했고, 올해는 필리핀에서 해외장학사업과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기주의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남을 돕는 모든 행동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주위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가족의 존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자신도 즐겁고 때로는 감격과 보람을 느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나만 잘 살고 주위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면 나도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필리핀 세부에서 경험한 해외장학사업과 의료봉사는 봉사가 주는 이러한 장점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기본적 존엄과 자율을 보장해 주는 행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진정 도덕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순수한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간직한다면 더욱 숭고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날로 기반을 다져가는, 두 돌이 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히 걸어가는 늘푸른 장학회가 되었습니다. 조용현 회장님의 헌신과 열정, 전기수 전문위원과 이상진 총무의 희생과 봉사, 상임위원들의 애정과 노력,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希望이라는 이름으로 創刊된 늘푸른 장학회 소식지의 두 번째 생일을 祝賀합니다.

늘푸른장학회 회장 _ 조 용 현



저희 늘푸른 장학회는 創立 이후 지난 2년동안 수많은 對立과 逆境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징족의 發展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나마 굳건히 자기본분을 다하며 生活해 온 23명의 釜山大學(社會科學大)재학생들에게 獎學金을 지급하였고, 2011년 12월 중순에는 금정구 평통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300여 세대의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에 쌀과 김치 등을 전달 하였고, 2012년 1월 초순에는 김호정 상임고문님外 6명의 상임위원들과 첫 해외장학사업으로 세계 모든 빈곤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NGO(비정부기구) 단체 중 하나인 With Asia와 함께 Cambodia 오지인 블랙이벵주, 블랙이프랑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약품(신근식 산부인과원장 제공)과 학용품(김호정 상임고문 제공)등을 전달하고 4박 5일 동안 우물파기 事業과 화장실 건립事業등에 동참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금정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의 人材育성과 自立, 自活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今年도 海外獎學事業은 지난 6월 28일 늘푸른 獎學會 단독으로 필리핀 CEBU에 所在 하고 있는 Technological university에 船舶 Engine 1기와 발전기 Engine外 2기 등 3대의 實用用 機械를 함께한 25명의 獎學會 會員들과 현지 大學에서 寄贈式을 가졌습니다. 大學개교 이후로, 첫 外國人의 기증방문이라 大學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마을 전체가 祝祭분위기로 넘쳐나는 듯 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歡迎과 歡待를 받았던 저희 모두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가슴 벅찬 感激과 感動을 가슴 깊숙이 담아 왔습니다.

다음날 역시 하루 동안學校인근에 있는 마야 마을주민들을 對象으로 한 現地의료봉사 역시 盛況리에 마쳤습니다. 늘푸른 장학회의 첫 海外事業이 이처럼 成功的으로 마칠 수 있도록 船舶 Engine등을 喜事해준 (주)Ocean Engineering 代表理事이신 48期 이창섭 회원님과, 의료봉사를 위해 本人의 의술제공은 물론,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각종의약품과 영양제, 수술도구 등을 提供해준 저희 장학회 特別會員인 신근식 산부인과 원장님, 의료봉사와 더불어 어린이 환자들에게 많은 學用品을 제공하신 김호정 상임고문님께 모든 장학회원들을 代表해서 地面으로나마 感謝의 뜻을 전합니다.

장학회 회원 여러분 이제 곧 늘푸른 장학회가 제2의 跳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가을쯤이면 지금까지 개인들의 일원이었던 장학회가 어엿하게 社會의 일원인 “社團法人 늘푸른”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들이 땀 흘리며 가꾸어 이룬 기쁨은 우리들이 持續적으로 다지고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늘푸른 장학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中心軸이 되어 주시는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獎學會의 모든 行政, 企劃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빈틈도 없이 運營해 온 전기수 전문위원 APMP의 영원한 Cafe지기이면서 장학회 행사의 모든 大小事를 챙겨주는 이상진 총무,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장학회를 이끌어 나가는 각 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들이 장학회 도약의 강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希望 2호 소식지 發刊을 축하하며 發刊에 도움을 주신 많은 광고주님들께도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健勝을 빕니다.



제2차 해외장학 사업

정리 _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_ 이상진(총무이사)



세부 막탄 공항에서 최북단 고속도로(우리나라의 국도수준)를 이용하여 벤으로 2시간 30분 정도 이동 하여(버스로는 약 3시간정도 소요되며 방문지역 근처 유명 휴양지로는 Gold Sandy Beach에서 방카(소형 현지 유람선))로 30분간 바닷길로 가면 불행한 크리스마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말라 파스쿠아(Malapascua)라는 아름다운 섬이였습니다. 말라 파스쿠아는 시간조차 멈춰버린다는 뜻이며 리틀 보라카이로 불리면서 최근 휴양지로 알려진 유명한 섬이기도 합니다. 늘푸른장학회에서 직접 해당 지역과 학교를 선택하여, 의료봉사활동과 어린이 문구전달등 모든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일단 가장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전문 해외장학 및 봉사회에서도 행사를 치르기 위한 제반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사전 답사를 비롯한 세부 일정 등이 치밀히 준비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장학회에서 분야별로 회원님의 재능과 열정으로 금번 해외장학사업을 이루어 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감동이자 자신감 일 것입니다. 김호정 상임고문님의 큰 구심력과 조용현회장님의 큰 원심력아래 회원님들의 열정과 순수의 총결정체가 아닌가합니다. 특히 세부현지에서 학교당국과 세부일정을





직접 챙기시고, 해외 행사일정을 진두지휘한 조용현회장님께 참가한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늘푸른장학회의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정회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더 큰 공통된 감동을 공유하였으리라 하는 바람입니다. 멋진 장학회로 더욱 발전하려면 기존회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참여를 유도하는 구심력을 발휘하는 즉, 응집력 있는 회원 프로그램과 기존 회원에 만 안주하지 말고 뜻을 함께하고 늘푸른장학회를 더욱 푸르게 만드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회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기금, 창립총회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함께한 기존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열정은 필요충분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파괴적 속성)가 발생하는데 계속성과 응집력을 가진 멋있는 조직은 네가티브 엔트로피(파괴적 속성이 아닌 조직유지 발전과 관련된 속성)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늘푸른장학회도 이러한 노력, 기존회원들의 동참과 참여를 유도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장학회가 더욱 새롭게 발전하리라 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비록 새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무더 지고 옛것이 됩니다. 우리의 해외 장학사업의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잊혀지지 아니한 소중한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을 처음 만났을때, 처음 장학회 설립에 동참 했을때, 처음 특별회원이 되었을 때의 첫 사랑과 감동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늘푸른장학회는 더욱 기존회원들에게 감동을 전할 곳 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공유 해야 하고, 회원 여러분께서도 처음 가졌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누리기 위해 더욱 더 큰 관심과 동참, 애정 어린 격려 등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감동의 공유가 흘러넘칠 때 늘푸른장학회는 어제 보다 더 푸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해외장학회에 동참하신 회원님과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응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필리핀 세부 마야의 봉사활동

정리 _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_ 이상진(총무이사)



● **현실** Daan Bantayan Campus는 10개의 전문 기술학과로 구성된 기술대학이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실습용 기자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 Cebu Technological University 본교에 가서 실습교육을 받는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학교수준) 개교 이래 외국인의 기증방문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당국에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받아 들이고, 본장학회에서는 간소한 행사(very simple ceremony)를 준비하라고 수차례 다짐 받았지만, 해당 학과학생은 물론이고 전교생의 진심어린 환영식을 마련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벅찬 감동을 경험한 멋진 오후였습니다.

● **의료봉사** 마야 지역의 인구가 9천명 정도인데 한명의 의사와 한명의 간호사가 있는 보건소가 공식적인 유일한 의료기관이고 5년전 미국인 의사의 의료봉사 이

후 늘푸른장학회의 의료봉사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고혈압, 천식, 무기력증, 졸림증, 불면증, 관절 계통의 통증 질환, 감기, 심한 무좀 등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늘푸른장학회 특별회원인신 신근식 원장님(영도구 소재 신근식 산부인과)께서 의료봉사를 위한 영양제, 항생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기본 일반의약품 및 어린이용 비타민과 성인용 종합비타민등을 기증하시고, 직접 현지 필리핀의사와 함께 진료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늘푸른 장학회 조용현 회장님, 이승근 회원님(군복무 주특기 의무병과)께서 신원장님을 도와주셨고,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전기수 전문위원이 필리핀 현지 간호사의 1차 문진(진료카드 작성시 질병 증상기록)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외 정영섭 회원님, 김종배 회원님, 김윤도 상임위원님 해외특별회원인 산디(SANDY SANDOVAL) 등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행사 김호정 상임고문님, 조용현 회장님, Vicent Sandoval (산디 부친)께서 축사 및 격려사를 하셨고,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늘푸른장학회 이름으로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용현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학교 당국으로부터 수여받으셨고, 본장학회를 대표하여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조용현 회장님께서 기증명패에 공동으로 서명한 명패전달식이 있었으며, 끝으로 전기수 전문위원이 학교당국과 학생들에게 환영식 및 기증식에 대한 소감을 전달하였습니다. 1부 행사후 실습용선박엔진 기증, 커팅식과 Sandy Gold Beach에서 참석한 회원님과 학교당국의 저녁 만찬식이 있었고, 만찬자리에서 공식행사에서 다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증 이창섭 회원님께서 늘푸른장학회에 2012년 9월 임원회의에 회원자격으로 참석하셔서 교육실습용 선박엔진3대를 본장학회에 기증하셨고, 본장학회에서는 임원회의를 통해 세부지역 기술전문대학에 늘푸른장학회 이름으로 “교육실습용 선박엔진 3대”를 기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 4월초에 현지와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되어, 2013년 6월 28일 Cebu Technological University Daan Bantayan Campus에 기증하였습니다.

위드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공부방·화장실 건립 봉사

글 _ 최희수기자 기사보도 _ 부산일보 2012-01-16 (11:02:00)



국내·외 빈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스님)는 최근 세계 최빈곤 국가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해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고 마을과 학교에 공동화장실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캄보디아의 오지인 브레이뱅주 브레이끄랑 마을과 끄로웃 마을에서 4박 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봉사팀은 의류 1,100여점과 의약품 20여점, 학용품, 담요, 축구공 등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래와 벽돌을 나르고 땅파기등 작업을하며 공동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부산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졸업생 장학모임인 '늘푸른장학회'가 동참해 물품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늘푸른장학회 조용현(56)회장님께서서는 "지구촌 이웃을 위한 국제구호 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고자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구호현장 방문'

정리 _ 이상진(총무이사)

1월 6일~11일까지 4박 6일의 빠듯한 일정으로 캄보디아 구호 현장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늘푸른장학회의 미래와 해외 봉사 사업과 더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 대표로 김호정 상임고문님, 조용현 회장님, 김윤도 상임이사님, 이은숙 상임이사님, 김경희 상임이사님 다녀오셨습니다.

방문 경비도 적지 않는데 경비 일체를 본인 부담으로 하시고, 또한 김호정 상임고문님께서 학용품(스케치북, 연필, 크레파스, 분필 등)을 50만원 상당의 용품을 찬조하셨으며, 조용현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신 영도 신근식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의약품(소독약, 설사약, 감기약, 파스 등)을 1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찬조하심으로서 캄보디아 현지 마을주민에게 구호품을 전달 하였습니다.

위드아시아 구호현장지 뿌레이끄랑 마을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전근수지부장 마을현황소개 후 주민과의 만남의 장, 구호물품전달식과 화장실 건립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 뿌레이끄랑 꼬로웃마을 어린이공부방, 라오마을 어린이공부방 견학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바쁜일정 잘 마치시고 무사 귀환 하셨습니다. 오늘은 따뜻한것 같습니다. 훈훈한소식에 늘푸른장학회 회원님 따뜻하시죠?





기독교단체의 사회봉사활동과 늘푸른장학회의 봉사활동


글 _ 전기수(전문위원)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정의와 사랑의 나눔으로 바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사회봉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여기고, 여러 형태의 물질나눔, 노력나눔, 재능나눔 등을 기획, 예산배정,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조직화 및 동기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행합니다. 일련의 기획, 예산확보, 집행에 이르는 과정은 기독교단체의 봉사 활동이나, 종교적 색채를 지니지 아니하는 단체의 사회봉사활동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사회 봉사단체에서는 여러 형태의 가짐을 ‘없는 자’를 위해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인식하며, ‘사랑을 나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단체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기독교단체의 봉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형태의 사랑을 실천해왔고, ‘지금도 실천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방법 또한 하나님 뜻에 부합한거라는 잣대를 가지고 방법적으로 잘 잘못을 따집니다. 사업결정 및 실행의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셋째, 사랑의 나눔에 대한 상과 위로가 구성원들의 찬사와 칭찬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더욱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늘푸른장학회를 포함한 사회봉사단체의 바람직한 봉사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늘푸른장학회의 근본목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학금수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을 위한 늘푸른 장학회의 모든 활동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간의 사랑의 나눔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회원간에 자연스러운 사랑이 나누어 질 때, 우리는 더욱 성숙된 인연이 되고, 나아가 더 큰 인연으로 평생친구로 형, 동생으로 살아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인연이 되어 사랑의 봉사를 실천 할 때 더 큰 힘이 나오고 늘푸른장학회는 늘푸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원한 큰 그늘을 선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독교사회봉사단체는, 때로는 회원간에 의견의 충돌로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위로를 간 구하면서 오해가 이해로 풀리기를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학회는 누가 위로합니까? 상임고문님과 회장님의 동기부여와 위로는 회원님과 임원단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나눌때 생깁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참에 서, 그리고 임원단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더 큰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볼 때 또한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사회봉사단체의 조직이 하나님 사회의 한 지체,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와 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우리의 장학회는 우리 스스로가 응집력 과 결속력을 가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늘푸른장학회를 멋있게 우리의 바람으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조직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조직은 속성상 만들어지면, 곧 허물어지려는 속성인 엔트로 피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직이 허물어지지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네가티브 엔트로피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해야만합니다. 네가티브 엔트로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단의 열린 사고방식으로 회원님의 의견 청취에 귀 기울여 야 하고, 각종 회의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집행의 과정이 보다 제도화되 고, 장학회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행사를 기획·집행의 일련의 과정 이 공개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특히 장학운영위원들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장학운영위원들의 역할은 장학회 모든 사업과정에서 참여해서 적극적 여론의 전달과 합리적인 비 판에 입각하여 사업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장 단점분석 및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늘푸른장학회의 발전의 근본은 회원님들의 적극적 동참입니다.



참고* 엔트로피는 열역학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물질이 파괴 될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생성되면 시간이 지나면 파괴됩니다. 새로운 옷을 잘 유지관리하다는 것은 네가티브 엔트로피를 생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조직도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와해됩니다.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전달

정리 _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_ 이상진(총무이사)

지난 1월 18일 금정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전달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늘푸른장학회의 모든 행사를 진행 할수 있는 것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묵묵히 후원해 주시는 장학회 모든 회원님들이십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방향 설정과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김호정 상임고문님, 늘푸른장학회를 위해 늘 신경쓰시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실천으로 홍보해 주시는 조용현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헌신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주신 임원 여러분들 외의 모든 분께 건강과 자녀의 성장과 발전,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 박재민 관장님 감사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APMP, 늘푸른장학회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조용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서 지난 1월 18일(금) 16:30에 직접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여 후원금(250만 원)을 전달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장애인의 인재육성과 자립·자활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늘푸른장학회 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늘푸른장학회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2013년 을 한해도 좋은일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장 박재민



감림산

정리 _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_ 이상진(총무이사)

늘푸른장학회와 부행 명품 산악회의 송년합동산행을 양산 감림산의 봄날같은 포근함 속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조용현 회장님, 박기조 산악회장님, 이은숙 골프회장님을 비롯하여 20여분의 회원님께서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식사장소로 양산에 위치한 “동강덕이”라는 오리불고기로 영양 보충도 했습니다. 이날 식사료를 늘푸른장학회 상임위원님인신 47기 김창수님께서 찬조하셨으며 박기조 산악회장님께서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오신 아주 특별한 양주를 찬조하셨습니다. 또 늘푸른장학회 상임위원님인신 김윤도님께서 장학후원금에 써달라고 하시면서 30만 원을 후원하셨으며 필리핀에서 산디님과 버드님께서 후원하신 1,000\$을 조용현 회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이로써 2012년의 행사는 송년합동산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1회 합동산행대회

정리 _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_ 이상진(총무이사)

금정구 tip

1988년 동래구의 북쪽 지역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현재 관할동은 서(書)1~4동, 금사동(錦絲洞), 부곡(釜谷)1~4동, 장전(長箭)1~3동, 선두구동(仙杜邱洞), 청룡노포동(靑龍老圃洞), 남산동(南山洞), 구서(久瑞)1~2동, 금성동(金城洞)의 18개동이다. 구청 소재지는 금정구 부곡3동에 있다. 동쪽으로는 개좌산과 공덕산, 서쪽으로는 금정산, 북쪽으로는 계명봉의 능선으로 둘러싸였고 남쪽으로는 트인 분지지형이다.

지난 2012년 4월 21일 토요일 늘푸른장학회와 부행명품산악회의 제1회 합동 산행대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에서 처음 시행하는 합동대회이고, 회원결속력 대회이므로 단순한 단합대회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 행사였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여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산을 바쳐 들고 산행하는 모습이 오히려 맑은 날 보다 운치가 있어 보였고, 약 1시간 10분가량의 산보를 하는 동안 주위 작은 물과 큰 물의 어우러진 자연의 이치가 만들어 낸 곡선의 아름다움과 두르두른 정겨운 회원님들의 담소와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행이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회원님들과의 조촐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산행을 하느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위해 인근 오리백숙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의전행사가 아닌 늘푸른장학회와 부행명품산악회의 품격을 위한 공식적 행사와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건배사와 김호정 상임고문님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늘푸른장학회 김호정 상임고문님께서 주식회사 해창대표 김종일님에게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셨습니다. 우천으로 체육행사를 대신할 오락행사를 마련하기위해 고민을 하다가 여석호 사회자의 장시간 동안의 상당한 진행 내공과 총무단의 순발력 발휘로 오락 행사를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되었고 회원님들의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락행사에 이어 향수를 달래는 OX퀴즈가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뒤이어 즉석 기수별 노래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음향시설과 섹소폰연주가 동반된 최고의 사운드 시설을 갖춘 참가번호 1,2,3번은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만, 4번부터 식당측의 강력한 항의(노래방시설 금지지역으로 벌금 해당사항)를 받아들여 마이크최소화, 음향앰프 최소로하면서 참가자들의 생목경연대회로 바뀌게 되었지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꽃 경품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현 회장님과 장학회임원들께서 찬조한 것을 직접 추첨, 시상하는 방식으로 행사는 이어졌습니다. 경품내용이 다양하고, 기발한 경품도 많았으며 참석하신 전원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진행도 재미있고, 경품 찬조자가 직접 경품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청난 경품 중에도 불구하고 경품을 하나도 수상하지 못한 분이 몇 분 있었지만 다음 행사시 경품대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더 알차고 세련된 행사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또 여러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워크숍 및 임시결과보고

정리 _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_ 이상진(총무이사)



늘푸른장학회 제2차 워크숍 대회 및 임시총회

2013년 5월 25일(토) KT경주수련관



경주 tip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있는 시. 신라 천 년의 고도(古都)로 명승고적이 많아 관광 명소이다. 제삼차 산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이며 특산물로 유기, 죽세공품 따위가 있다.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와 그 밖에도 많은 명승지가 있다. 1995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경주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이루었다. 면적은 1,324.08km²다.



지난 6월 1일 경주 소재의 KT수련관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26명의 회원분들과 늘푸른장학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조출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호정 상임고문님께서 10분 내외의 유머와 위트있는 사례를 들어 잔잔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명특강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조용현 회장님의 축사와 함께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시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통해 더욱 성숙된 늘푸른장학회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늘푸른장학회를 임의단체에서 비영리 사업단으로의 전환과 명칭공모안이 나왔으며 장학사업, 해외장학사업, 사회봉사사업을 포괄하는 명칭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칭선정을 위해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전기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비영리사업단의 장점과 사단법인 설립절차, 구체적인 비영리사업단인 설립요건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 및 정관작성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명칭변경의 주된 목적으로 장학사업, 사회봉사사업, 해외장학사업 등을 포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지하고 뜨거운 분위기로 약 40여분간의 집중토의와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점성 회원님께서 설립 및 등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으로 많은 도움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영섭 회원님의 주무관청에 대한 논의와 중앙부서, 부산시청 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영섭 회원님이 회장으로 있는 영농법인의(축차) 구체적인 실례로 회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칭에 대한 토의에서 명칭변경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전기수 전문위원님께

서 설명해 주셨고, 명칭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류희연 상임위원님의 늘푸른사람들, 성민주 회원님의 늘푸른나눔회, 기타로는 늘푸른봉사회, 늘푸른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늘푸른채리티, 사단법인늘푸른장학회 그리고 늘푸른재단 산하기관으로 늘푸른장학회, 늘푸른봉사회가 거론되었습니다. 함께 힘써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공모와 임원회의를 통해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실무작업 시에는 주무관청에서 분회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중복사용 등을 명칭조회를 통해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나고 점심식사와 회장배 볼링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화원이 참가하는 대회 4인 1팀 총 6팀으로 모든 회원이 참가하여 볼링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십년만에 다시 잡아보시는 분과, 처음 잡아 보시는분,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명난 대회였습니다.

볼링 행사에 이어 명패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명패 전달식에서 여석호 영산대학교수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이어 부산 농심호텔 앞 광장에서 생맥주 한잔으로 자체 평가회와 소감으로 정감있는 해단식을 하였습니다. 저마다 감사와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약속해 주셔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해단식 경비는 볼링대회 상금인 우승, 준우승 팀원들께서 찬조해주셨습니다.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늘 지켜봐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조용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관심과 열정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함께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더욱 참신한 기획과 알차고 배려있는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등록에 따른 정관 조직기구 및 회칙내용전반에 대한 회칙개정위원회(상임운영위원) 소집을 7월 30일 이후 회의예정입니다.

장학금 선발

제4회 늘푸른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다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낼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가난은 나라남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지만, 가난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사회! 역전했을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수 있는 사회! 늘푸른장학회가 하나의 밑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4회 늘푸른장학생이 선발되기까지의 가장 원천적인 힘은 상임고문님과 회장님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장학회를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아닌가 합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 1 제5회 늘푸른장학회 장학생 : 행정학과 - 장주용, 박은철
사회학과 - 변혜민, 박철순
문헌정보학과 - 김도영
 - 2 대상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내 모든학과 재학생, 자격 : 학점 평균 2.5 이상
 - 3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자기소개서, 가계곤란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 4 선발공고 및 준비서류접수 : 김호정 상임고문님의 책임하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조교선생이 접수
 - 5 1차 서류심사 : 접수서류정리 - 행정학과 사무실
 - 6 2차 심층심사 :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상임장학운영위원들의
장학생선발회의를 통하여 선발
- * 선발우선순위 :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자기소개서를 통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고려, 국가유공자, 성적

이야기
첫번째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박 미 진

안녕하세요. 늘푸른장학회 장학생 박미진입니다.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긴장한 상태로 모임 장소에 찾아갔었는데, 다정하게 맞이해주신 장학회 회장님과 임원분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CEO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라 좀 어려운 분들이지 않을까?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정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을지 조심스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이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이런 장학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정을 잘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학금도 감사하지만, 장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공부 잘하라고 격려해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신 85학번 선배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시는 임원분들 다 기억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였어요.

회장님께서 후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서 사회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20년, 아니 10년 뒤, 빠르면 내년이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면 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
두번째

늘푸른장학회의 도움으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 태 영

2012년도 2학기에 들어서기 열흘전쯤, 우연찮은 기회로 늘푸른장학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면서 생길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장학생에 선발되어 수여식에 참여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늘푸른장학회의 존재도 잘 몰랐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분들이 후원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야 우리학교의 행정대학원분들과 소수의 외국분까지 모여,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주고자하는 뜻깊은 단체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으로 인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쉽지 않은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받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저도 베푸는 입장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야기
세 번째

저의 고민은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이 향 미

안녕하세요. 늘푸른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이향미라고 합니다. 40여년만의 거대태풍인 블라벤이 지나가 아직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덴빈이 복상하고 있어 걱정이 큼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대학생살, 취업, 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생활을 마지막 한학기를 앞두고 있다보니 이러한 고민의 무게가 크게 사실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좋은 성적을 강요하던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또 사회에서 강요하는 '스펙쌓기'에만 나의 청춘을 바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우리로 보지 않고 학벌과 스펙으로만 판단하는 지금 이사회는 참 살기 힘든 사회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저의 배부른 불평이고 부끄러운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어떤 ucc를 보게 되었습니다. 늘 말로만 들었던 '한강의 기적'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한국전쟁이 끝난 후 '오늘'만을 살던 조상들에게 '내일'은 그저 배고픈 오늘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이 아닌 그들의 자식들만은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고 베트남파병을 하여 경제 건설에 앞장섰다는 내용이었는데 한강의 기적이 놀라운 것은 빠른 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하더군요.

매일 매일 굶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꿈이었던 것에 비하면 저의 고민은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한편, 늘푸른장학회에서 이렇게 후배들이 좀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른들이 있는 사회는 꿈꾸며 살기 훨씬 나은 사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복한 현실에 불평하기 보단,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주시는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 또한 그 고귀한 마음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젠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제가 직접 행동하여 좀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늘푸른장학회에서 후배들에게 선뜻 장학금을 주시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의미있는 것이 겠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꼭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조심하시고, 늘 행복만 깃드시길 바랍니다.



늘푸른장학회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계획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양원진

늘푸른장학회 3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회학과 양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학생 모집공고를 처음 보게 된 것은 7월 달이었는데, 모집기간이 지난 후 공고를 접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이후에 장학생 신청 기간이 늘어났고, 또 경제적 상황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공고의 내용을 보고 혹시 나도 선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상황을 위주로 선발한다하더라도, 요즘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지원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 과연 선발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다행스럽고, 운 좋게도 3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이후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쓴 자기소개서 내용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장학회의 취지에 맞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선발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발된 이유는 단지 추측에 불과할 것입니다. 단지 가정 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과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가정 상황과 장학생으로 신청하게 된 동기, 또 장학생이 되어야 할 이유와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장학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장학금으로 무엇을 할지를 자세하게 적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ACA(Adobe Certified Associate)에서 포토샵과 플래시로 시험을 치르고 사회조사분석사 2급 공부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ACA는 매 달 마다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시험이

있으나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응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는 일 년에 정기적으로 2회만 치러지고, 아직 통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은 저에게는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2급 시험에 응시해볼 계획입니다. 이후에 자격증 응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연락드리고, 글만 한 번 남기고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다섯번째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한 ‘희망’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은혜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처음 한 학기를 마친 저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과외를 하고자 여러 군데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의 아르바이트도 이미 T.O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렵고, 저의 아픈 몸 때문에 드는 병원비는 점점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장학금을 알아보았으나 모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산대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바쁜 시간을 틈내어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학장님과의 면담 시간에 저희 가정 형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행정실과 행정학과 사무실에서 ‘늘푸른장학회’를 소개해주셨습니다. 학장님께서 저에게 소개해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실망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희망’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같은 학교 선배분들께서 마련해주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장학금은 저에게 더 뜻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늘푸른장학회에서 받은 희망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희망을 언젠가 저처럼 실망에 잠겨 있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여섯번째

제 꿈과 닮은 늘푸른장학회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승혜

방학 중에 우연히 공지를 보고 신청한 늘푸른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처음엔 기쁜 마음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장학금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 늘푸른 장학회 사무실을 찾아서 수여식 시작 전에 늘푸른장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면서 부담감은 사라졌고, 제가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푸른장학회의 장학금은 제 꿈과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와 그 꿈을 이루어갈 발판을 마련해주신 늘푸른장학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때 받은 도움을 항상 생각하고 꼭 꿈을 이뤄서 저와 같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장학금, 늘푸른 마음!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 철 순

우연치 않게 늘푸른 장학생을 선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늘푸른장학금', 익히 알려진 장학회가 아니라서 저도 처음 알게되었는데 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자세히 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여식에 참여했을때 너무나도 친절히 설명해주신 위원님들과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주신 관계자분들을 보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장학회의 설립목적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국내·외의 장학사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회원들의 삶의 보람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저에게 이번 늘푸른 장학금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는 다행스런 기회였습니다. 장학생에 선정된 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간직할 것 같습니다. '나도 꼭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항상 현재보다 나아지는 사람이 되자.' 이 다짐 그대로 늘푸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함



감사의 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김 민 규

다음 학기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방학 대부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어느 날의 오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통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늘푸른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건장한 사회인이 되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주었고 한번 해 보자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장학회를 창립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뵈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님의 어려운 후배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고, 이후에 언젠가 저도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刻骨難忘(각골난망). 조용현 회장님을 비롯한 장학회 회원분들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는 것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회 카페를 통해서도 계속 활동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아홉번째

Helper's High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이지은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이지은입니다.

과사무실에서 늘푸른장학생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하셨는지 궁금했었는데,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 하던 날 받은 책자를 읽고,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과 저희과 김호정 교수님께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늘푸른장학회'를 설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장학회 분들께서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계셨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장학회 회원님들'의 열성과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귀한 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헬퍼스하이(Helper's High)'라는 말을 보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어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장학회에서 주신 장학금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미래에 후배들을 위해서 늘푸른장학회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산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대학 생활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3학년에 진학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늘푸른장학회'에서 주신 감사한 도움으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장학금이 선물해 준 아버지의 미소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박연주

학과 사무실에서 '늘푸른장학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늘푸른장학회'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사무실로부터 '늘푸른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통보에 저는 얼굴 한 가득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학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공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딸 덕에 이렇게 웃는다."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아버지께 이번 장학금으로서 웃음하나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 그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 다녀왔습니다. 행정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하고 계신 김호정 교수님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오신 하늘같은 선배님들의 환대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장소에 들어가기 전만해도 불편한 자리가 되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선배님들의 미소와 함께 저의 그러한 걱정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꼭 선배님들께 받은 이 사랑을 저의 후배와 이웃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제 3학년이 되는 저에게 장학금으로서 큰 힘이 되어주신 '늘푸른장학회'의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뿐만이 아닌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정진해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늘푸른장학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나눔愛 동참

늘푸른장학회의 사랑나눔愛 동참 하시는 아름다운 분들 늘푸른장학회의 사랑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신여러분께 더욱 알찬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당부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행사 마다 물품을 후원하신 분들
 - 조용현 회장님 : 문구 및 스포츠용품
 - 이창섭 회원 : 선박용 엔진 실습기기
 - 산디 : 선박용 조타실습기기
 - 신근식 회원 : 상비 의약품일체
 - 이승운 상임위원 : 홍지천 선물세트

- 행사참조는 식사대접 및 2부 행사 시 금일봉 및 식사찬조
 - 김윤도 상임위원 : 행사후 평가회 식사 찬조
 - 김태화 상임위원 : 행사 찬조금
 - 박기조 회원 : 부행명품산악회 직전회장님
 - 성민주, 박명희 : 43·44기 회장님 금일봉

- 1차 산행대회 (2012년 4월 21일)
 - 김윤도 상임위원님 : 자수수건 세트
 - 45기 회장단 고점성 회장님, 임용순총무님 : 등산용 물통
 - 박기조 산악회회장님 : 디카 사진기
 - 정영섭 회원님 : 녹차 다인회 회장 녹차 5세트
 - 이은숙 상임위원님 : 양주 1병과 고급와인 1병
 - 여석호 상임위원님 :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 이상진 총무이사님 :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 전창제 총무이사님(산악회) : 물통 셋트
 - 김경희 상임위원님 : 줄기세포 팩 용
 - 전기수 전문위원님 : 허진규옹기장 향아리
 - 조향숙님(게스트) : 보약1제권 (경대한의원)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개별 후원금
 - 조용현 회장님 : 일금 1,000,000원
 - 김윤도 상임위원님 : 일금 300,000원
 - 이창섭 회원님 : 일금 200,000원

- 송년 산행대회 후 저녁만찬 : 김창수 상임위원님
- 블란스 양주 : 박기조 부행명품 산악회 직전 회장님

- 장학금수여식 후 평가회 식사찬조
 - 조용현 회장님, 김태화 상임위원님, 김윤도 상임위원님



늘푸른장학회 행사일지

● 늘푸른장학회 추진경과보고

- 1** 2010년 8월하동 WORKSHOP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APMP과정 수료생 45기, 46기, 47기

- 2** 장학회설립을 위한 발기금 모금
- 2010년 9월 이후 : 2010년 12월
 - 발기금 참여자 : 50명
 - 총모금액 : 1억 1천 2백 8십만 원

- 3** 늘푸른장학회 추진과정
- 1기 : 2011년 2월 이후 - 7월 동문회 사업과 장학회사업의 병행
 - 2기 : 2011년 7월 19일 이후 동문회사업과 독립된 장학회 사업추진 장학회 회칙 제정위원회의 결성
 - 4기 : 2011년 8월 4일 본회 명칭 공모에 의해 늘푸른장학회로 정함 회칙제정안 의결, 회장 및 임원단 추천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 2011년 8월 18일 장학금 지급 총회 때 추인 받기로 의결 제1회 늘푸른장학회 장학금수여식
 - 2011년 9월 1일 늘푸른장학회 창립총회 일

● 늘푸른장학회 행사일지

- 2011년 8월 18일 : 제1회 장학금 수여식
- 2011년 8월 31일 : 창립총회
- 2011년 11월 5일 : 임원 워크숍 (workshop)
- 2011년 12월 16일 : 사회소외계층 월동 김장 나눔 행사
- 2011년 12월 16일 : 송년회

- 2012년 1월 6일 : 9일 해외장 학활동 (위드아 시아 캄보디아 구 호활동에 참가)
- 2012년 2월 17일 : 제2회 장학금 수여식
- 2012년 4월 21일 : 합동산행대회
- 2012년 8월 21일 : 제3회 장학금 수여식
- 2012년 9월 1일 : 제2차 정기총회
- 2012년 12월 15일 : 늘푸른장학회 · 부행명품산악회와 합동 송년산행대회
- 2013년 1월 18일 : 금정구장애인 복지관 후원금 전달식
- 2013년 2월 19일 : 제4회 장학금 수여식
- 2013년 5월 25일 : 제2차 워크숍대회 및 임시총회

● 임원회의 횡수

- 1** 임원회의 후 식사는 늘푸른장학회 사무국 (회장님 사무실) 식당에서 제공
- 2** 조용현, 김윤도, 김태화, 여석호, 강주택, 김창수 상임위원님 들 찬조



사진으로보는 늘푸른의 이모저모



정기총회 _ 회기입장



정기총회 _ 감사패전달



해외장학사업 _ 기술전문대



해외장학사업 _ 기술전문대



해외장학 _ 의료봉사



해외장학사업 _ 아이들과 함께



해외장학사업 _ 기념촬영



해외장학사업 _ 참석하신 분들





워크숍임시총회 _ 명패전달



워크숍임시총회 _ 해단식



월동김장나눔 _ 김치나눔



장학금수여식 _ 제3회 장학금전달



장학금수여식 _ 제4회 장학금전달



장학금수여식 _ 제4회 장학금전달





그 아버지에 그 아들 Like father like son !

글 _ 최복춘 회원

정말 오랜만에 늘푸른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약간의 들뜬 기분으로 집을 나오다가 만난 반가운 편지 한통! 굿네이버에서 지난달 입금 내역과 함께 한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 사진속의 약간은 수줍은 듯이 서 있는 마른 체형의 이 소년은 우리 작은 아들이 6살때부터 우리와 인연을 맺게 된 우리집 셋째! 방글라데시에서 아픈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어 학교도 못가고 집안에만 있던 아이였는데 우리의 작은 성금으로 지금은 학교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넉넉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편지속의 아이 모습과 함께 내 기억은 몇년 전으로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2011년 3월 작은 아이의 돌잔치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위스컨신으로 향했다. 국제로타리 클럽에서 후원하는 GSE(group study exchange)멤버

바로 가는 영광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한달의 체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남을 먼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몸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다.

그곳에서 만난 한 아가씨는 한국 이름이 설화(아마 경찰서 앞에 버려져 있던 날이 마침 눈이 와서 고아원에서 눈 위에 핀꽃으로 한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다고 미국의 양엄마가 설명)인데 그곳 사람들이 영어로 쓰여 있는 한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몰라 그 아가씨의 이름은 솔라로 바뀌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기형아로 세상에 인사를 하게 되어 한국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해외로 입양되어 간호원 출신인 양엄마가 세번의 수술 끝에 없던 눈도 생기고 코도 세우고 콧구멍도 만들어 우리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중 누가 보더라도 인물은 진짜 없는 그런 아가씨였다. 함께 갔던 우리 단원들은 솔라가 한국으로 친부모를 찾기위해 왔을 때 먼 길을 마다않고 서울까지가서 다시 반갑게 만났지만 (그때 한창 입양아들의 부모 찾기 행사가 비 공식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었다. 이후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걸 우리 모두 다 기억 하리라 생각한다.) 결국 그 부모는 찾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풍경만 보고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 GSE단원 네명이 돈을 모아 사줬던 한복 또한 생각난다.

그리고 내가 몇 달 머무르는 동안 나의 이웃의 많은 집들은 거의 다 아이가 세 명 이상이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물어 보았더니 정부에서 세번째 아이가 있는 집에는 지원금

이 많다고 했다. (누군가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셋째 아이 지원금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산다고 했다.)

다음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 한국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거짓말 약간만 보태면 세 집 걸러 한 집씩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 처음에 한 아이는 난 너무 반가워서 그 아이에게 달려 갔더니 나를 무서워하며 엉엉 울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입양된 이후에 나처럼 큰 한국인은 처음이라고 그 아이의 엄마가 말해줬다. 분명 외모는 한국아이인데 한국 사람을 낳설어 하는 것이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우리도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며 신랑과 함께 몇 년 동안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지만 그때 당시는 일반인이 아이를 입양한다는게 쉽지가 않았다. 그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떤 토텐트가 입양의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한국내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다. 해서 이후 입양을 포기하고 대신 한 아이의 후원이라도 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따라 우리 작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를 소개 받아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데 일년에 한 번씩 고맙게도 아이의 성장 모습을 보내 주신다. 가끔 아이가 직접 방글라데시어로 편지를 쓰고 그 옆에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날아 오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우리 셋째의 사진이 도착한 날이다. 이 아이의 성장과정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정성으로 그 어리던 꼬맹이가 이제 제법 의젓해 보인다. 내 손길이 닿아 정성껏 돌본 아이는 아니지만, 방글라데시에도 나와 피부색이 다른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번씩 흐뭇함을 느끼며 그 이후 우리 부부의 해외 봉사활동은 좀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같다.

잠비아, 필리핀의 여러 지역등등으로... 그래서 처음 늘푸른이 해외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을때 더 많이 반

가웠던건 사실이다. 살면 살수록 멋지고 느끼는 우리 신랑은 해외봉사를 자꾸 하다보니 어느덧 중독이 되는것 같다고 해외봉사를 하며 느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떤 때는 해외의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미안한 맘도 생긴다고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을 돕는다는게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커피 한잔, 아니면 점심 한끼 아껴서 정성을 담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그곳의 한 가정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상대적인 뿌듯함도 크고 내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흐뭇함이 밀려오기도 한다. 작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개업 때 축하 화환 대신 쌀 화환으로 장만해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기,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떡 돌리기, 부모가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을 동사무소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이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쌀 보내주기, 장애자집에 뭔가를 기부하기 등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눈망울들에게 수없이 많은 정성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 했으면 한다.

이제 방금 도착한 사진을 작은 아들 책상앞 유리에 끼워 놓으며 작은 소원을 빌어본다. "그 아버지에 그아들!"이란 말처럼 아버지의 선행을 배우며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아들로 자라길 바란다.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아내

글 _ 고점성 회원



강물은 만나는 바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나니

‘홀러가는 저 강물은 만나는 바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는 말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된다. 나는 친구도 많고 대인관계도 제법 폭이 넓다고 생각한다. 사는 동안 주위 사람들이 이끌어 주고 밀어주며 칭찬과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강물위를 스쳐 지나간 많은 바람중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바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는 강물위에 불어주는 한때의 바람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삶의 모습을 바뀌게 해준 사람도 있었는데 다름아닌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이다.

어머니

그 누구도 낳아주시고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가없는 사랑에 형언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식이 세상 그 어디 있으며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이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나역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면서 우선 눈물부터 나온다. 그 찡든 가난속에서도 자식만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거라고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였

는지 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 하듯 그 크신 은혜는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높다. 제자식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세상천지 어디에 있으랴만 나를 위한 어머니의 고생은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열차통학을 하였는데 시골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시간여를 걸어가서 열차를 타고 가야하므로 수업시간에 맞춰 아들을 보내려면 어머니는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나혼자 먹을 아침밥과 도시락을 챙겨 주셔야만 했다.

3년 내내 그렇게 하셨으나 단 한번도 불평을 하시거나 힘들고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겨울철에는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호롱불을 켜고 준비를 해야만 했으니 낳아주시는 그 은혜 못지않게 하늘보다 더 높은 길러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통을 감내하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성품을 보면서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라는 동안 배우고 깨달아 삶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어린시절 가난한 시골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찢든 가난 때문에 풀베기, 나무하기, 논매기, 밭매기 등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느라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초등학교(나는 지금도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더 정감이 간다.) 3학년시절 담임선생님께서 나에게만 선물을 주시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셨기에 중단할 뻔 했던 학업을 더욱 열심히 계속할 수 있었다.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인 초등학교시절 담임선생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부산으로 전근을 가시면서 그 어느 학생에게도 주지 않았던 ‘분도기’와 ‘30cm막대기 자’ (그 당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음)를 선물로 주셨는데 유독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었기에 같은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가슴 벅차올랐던 일이라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그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으로 인해 나도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다짐을 갖게 해주셨고, 그러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되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으로 만들어 졌으며, 지금도 어떤 분야이든 공부에 대한 열정만은 계속 진행형인데 칭찬과 격려야 말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름한 얼굴 예쁜 모습의 선생님에게 항상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을 잊지않고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아내

사는 동안 만남은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와의 만남은 우연이 필연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인해 맺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후 거의 6여년 가까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사귀었다. 군 입대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이성이라는 생각없이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였다. 그런데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병영생활의 고달픔과 외로움으로 인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으나 딱히 누구에게 연애편지를 주고 받을 상대방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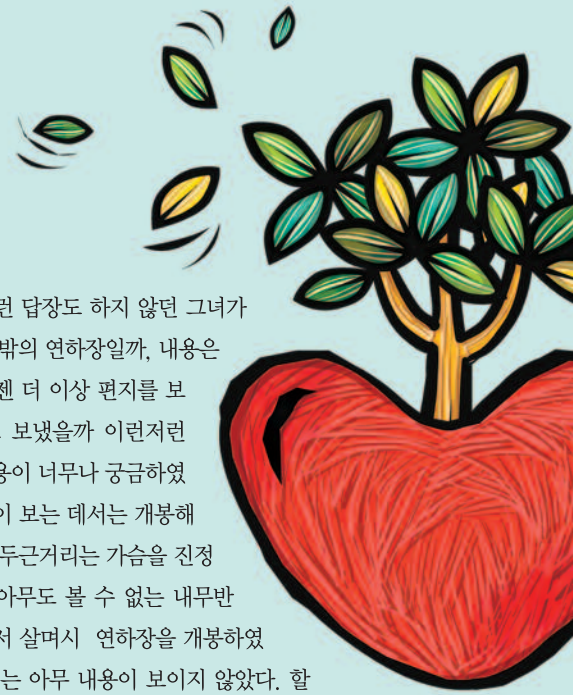
내무반생활을 같이 하는 선·후배 사병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연인들과 위문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힘들고 외로운 군생활을 잘 견뎌나가는 것 같았으나 당시 나는 편지를 주고받을 여성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1년여 동안 한결같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장 한통 받지 못하였다. 절망감과 함께 더욱 업습하는 외로움에 군생활이 너무 어려웠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진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나 같은 촌놈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겠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혼자서만 외로운 마음을 달래 보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괜한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편지 보내는 것을 단념하고 군생활이나 열심히 하자고 다짐하고는 두달여간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편지를 보낼곳도 답장을 해줄 상대방도 없어 쓸쓸하고 괴로운 병영생활은 계속 되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지 않은지 두달가량 지났을 무렵인 이듬해 초에 뜻밖에도 내게 편지 한통이 날아왔다.

일년여 동안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웬 뜻밖의 연하장일까, 내용은 뭐라고 썼을까 이젠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보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이 너무나 궁금하였으나 다른 병사들이 보는 데서는 개봉해 보기가 두려웠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병사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내무반 막사 뒤쪽으로 가서 살며시 연하장을 개봉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할말이 없어서 일까 할말이 너무 많아서 아예 적지 않은 걸까, 그런데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단 한줄의 글귀 뿐이었다. “이해 내내 건강하시기를 ㅇㅇㅇ”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것도 펜으로 직접 쓴 것이 아니고 타이핑을 한 것이었다. (당시 아내의 타이피스트였고, 그 후에 알았지만 펜글씨는 자신이 없었던 것임) 그래서 한통의 연하장이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전에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법원공무원시험공부를 하여 1978년도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근 30여년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하였다. 아내로선 나름대로 제법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우리는 때론 필연으로 때론 우연으로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이 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현재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면 흘러가는 강물이 만나는 바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듯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인생의 이모작을 경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난 부형최고과정 원우들은 어떤 모습의 바람으로 다가와 흘러가는 저 강물의 모습을 어떻게 바뀌 줄는지 미지수이나 햇살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강물의 모습으로 흐르고 흘러 훗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후회없는 행복한 여정이었노라고 반추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탐(貪)·진(嗔)·치(痴)·삼독(三毒)을 버리고 비우고 내려 놓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ㄸ달림없는 삶을 영위해 가고 싶다.



작은나눔 큰기쁨

글 _ 신근식 회원 (영도구의사회장, 신근식산부인과의원장)

요즈음같이 바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줌으로서 자신에게 몇 배의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새삼 가슴깊이 느끼며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저희 늘푸른장학회가 창립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참여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학사업 나아가서 의료봉사까지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가슴이 뭉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특별회원으로 영입되어 여러 훌륭한 회원님들과 함께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첩첩산골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형제들을 잃었고, 어릴적부터 줄곧 슈바이처같은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어렵게 의사가 된지 어느덧 32년이 지났지만, 몇 번의 형식적인 단체 의료봉사를 제외하곤 항상 마음속으로만 참의료봉사를 꿈꾸어왔고 여지껏 실천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세부 의료봉사는 미약했지만, 제 자신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첫걸음이었다고 감명적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박한 세부 주

민들을 진료하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40~50년전 어렸을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으니까요.

〈비만으로 고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영양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바깥마른 저체중 빈혈 환자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고혈압,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이었고 오히려 위장질환 환자는 드물었으며, 특히 커피를 지혈하기 위해 집어넣었던 숨을 4개월째 빼지못해 썩은 뼀새를 참고 고통스럽게 지낸 6살 소년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핀셋으로 썩은 숨을 제거하는데 불과 몇 초도 안걸리는 간단한 처치였기에...〉 또한 세부 Technological University에 교육용 선박엔진을 기부하고 받은 과분하고 진심어린 환영식은 참석한 모든 회원님들께서도 가슴깊이 느끼셨듯이 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 회원 대부분은 전후세대로서 누구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가난한 청소년기를 힘들게 헤쳐나와 각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시피 저희 사회에는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 소녀소년가장, 독거노인, 노숙자, 행려환자 등 많은 가난한 소외계층들이 같은 하늘 아래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늘푸른장학회가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꿈을 주는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슈바이처 정신을 되새기며 참의료봉사를 실천하며 좀더 낮은 자세로 힘들고 어려운 환자분들을 성심껏 돌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기부문화는 부자들의 권리인가? 시민들의 의무인가?

글 _ 여석호 상임위원 (영산대학교 교수)

최근에 회자되었던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부채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여 500만원 이상, 2000cc 이상의 중형차, 잔고 1억 원 이상의 예금액,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 중산층에 속한다고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영국은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프랑스는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약기를 다룰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미국은 부정과 불법에 대항하고,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하며,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등이다. 위의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물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선진 외국은 물질 보다는 건전한 생각을 우선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성숙도를 시사하는 요소중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부문화가 선진 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꼽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기부액이 전체의 20%선으로 대부분이 기업 또는 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나, 미국의 경우 연간 기부액 2,984억 달러중 개인이 73%를 차지하고 있어, (2011년 자료)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우리 늘푸른 장학회와 같이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부봉사활동이 사회 각층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춘기 때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을 밤샘하면서 읽은 기억이 떠 오릅니다. 특히, 전당포 노파의 돈을 사회에 좋은 일로 환원하려고 노파를 살해하

는 라스콜리니코프 행동을 은연중에 두둔하였지만, 지금은 수단이 좋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의미가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소나에게 온정을 베풀지만 끝내 죄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은 돈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해야만 가장 빛나고 박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은 여유가 있기에 기부활동을 한다고" 나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돈의 유무 보다는 생각의 차이에 활동 여부가 결정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푸른장학회에 기부해 주시는 회원님, 소중한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름다운 기부활동을 할 것 입니다. 최근 2~3년간 정말 한마음으로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잘 해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같은 일을 하면서 동 활동에 대한 가치와 감동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 우리 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희생정신과 포용력, 지혜와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성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기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장학회의 특징은 직접 참여하여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낀다는데 있다고 생각



히말라야!

글 _ 조용현 회장

오래전부터 살아생전 꼭 한번은 가보자고 했던 곳, 히말라야. 그 오랜 숙원을 이제야 풀게 되는 가슴 조이는 설렘 보다 다가오는 막연한 기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 2013년 5월 2일 출발 첫째날

오전 7시 인천공항 출국장 앞. 오늘부터 7박 8일 동안 生死를 함께 할 분들이 모였다. 히말라야 7000m 이상의 고봉 등반경력이 다분하신 나와는 동갑내기인 주정수 산행대장. 이번 히말라야 Trekking을 주최한 제이미 파커스 잡지사 전속 사진기자인 아직 총각딱지를 못뗀 김부장. 멀리 제주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신다는 변창세 원장님 내외분,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H사 金成吉희 장님과 서로의 가벼운 상견례를 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오전 8시 50분. 드디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Nepal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96便에, 30kg이상 나가는 각자의 대형 배낭과 나뭇대로의 육중한 몸(?)들을 싣고 장장 7시간 30여분의 장거리 비행길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오후1시경 Kathmandu의 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 에 도착 空港內 出入國 관리소에서 각자의 임시 Visa를 받고 空港밖으로 나오자 아열대나라 특유의 카레향기와 더불어, 늘어진 아스팔트에서 뿜어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우리를 맞이하는 Nepal의 첫 인상치고는 참으로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석이 왼쪽인 韓國의 도로와는 정반대인, 대부분 포장에 덜 되어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50여분을 달려 Nepal에서의 첫날밤을 묵을 숙소인 YAK & YETI Hotel에 도착. 내일부터 시작되는 긴 여정의 히말라야 Trekking을 위해 각자의 장비와 짐들을 정리한 후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새벽잠들을 설치तर 모자란 수면 보충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참고, 한국과 Nepal의 時差는 3시간 15분이며 한국이 빠름)



● 2013년 5월 3일 둘째날

오전 5시 30분. 이른새벽. Morning Call이 없었음에도 전날의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인지 일찍 잠에서 깨었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라 그런지 건물만 높다란 멋없는 한국의 Hotel 과는 달리 잘 가꾸어진 넓은 잔디로 잘 어우러진 정원과 Hotel 담장을 가리기 위해 심어 놓은 듯한 빼곡하게 차있는 야자수 나무들이 열대정글을 맞보는 듯 했다. 6시 30분 이름조차 생소한 인도 음식들로 채워진 Hotel 뷔페로 아침을 마친 후, 오늘부터 5박 6일동안 히말라야 Trekking을 위해 生死苦樂을 함께하는 동지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행의 무거운 짐을 도맡아야 하는 Porter 6명과 해발 4000여m에 자리잡은 Trekking의 마지막 Base Camp인 강진곰파까지 안내해줄 현지인 가이드 1명 비교적 韓國語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역시 現地人인 요리사 6명과 우리일행 6명 포함 19명이 한 Team을 이루어 출발을 기다렸다.

오전 7시 30분 일행은 5대의 무거운 짐차인 Land Cruiser에 3~5명씩 나누어 타고 히말라야 Lang Tang 계곡으로 가는 첫 출발지인 샤브르베시로 향해 첫 시동을 걸었다. 가는 동안 몇 개의 높고 낮은 거대한 산들과 계곡들을 지났는지 모른다. 그 어떤 안전 방벽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 계속 이어지는 아찔한 낭떠러지 절벽길. 한국 태백의 山들이 이를 닮았을까. 악명 높은 페루의 마추카추 산악길이 이에 비할까. 히말라야로 가는 길목은 첫발부터 멀고도 험했다.

가는 곳곳에 비로 인한 바위와 토사가 넘쳐흘러 언제라도 우리를 덮칠 것만 같아 내내 긴장을 멈출수가 없었다. 점차 목적지가 가까워 오는지 멀리 눈 덮인 히말라야 고봉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오후 5시경 드디어 첫 출발지인 샤브르베시에 도착(해발 1470m) 했다. 수 시간 동안 오금에 저린 근육들이 몸살이 날 지경이다. 출발 전부터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게 하는 히말라야가 어떤지 두렵기조차 했다.



● 2013년 5월 4일 셋째날

새벽 6시. 산속이라 아직 여명이 채 가시질 않는다. 어제 하루 종일 고행을 한 덕분인지 모두다 몸들이 무겁다. 일행보담 좀더 일찍 일어난 요리사들이 아침 준비 하느라 손놀림이 분주하다. 예전 한국인 등반 Team에서 수년 동안 요리를 해 왔다는 chief cook,인 Mr.Lamsa,가 진두 지휘 한다. 하얀 쌀밥에 김치 두부국, 시금치와 콩나물 무침 등 만나라 깊은 산중에서 먹는 식사 치고는 풍성하다. 아침 7시 30분. 히말라야 Trekking course 중 가장 아름답다는 Lang Tang계곡을 향해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길이 시작된다. 울창한 밀밭 속 같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히말라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아기가 기한 한국의 봄 산행 같은 숲길을 걷는 것 같은 맛을 준다. 빙하가 흘러 내려오는 울창한 물소리의 계곡 길을 발치에 두면서, 걸어 올라온지 4시간 멀리 조그만 Lodge가 보인다. 히말라야 Trekker들을 위한 休息處이자 히말라야에서 만나는 첫 마을이다. 한국 시골의 작은 구멍가게 비슷한 商店에는 코카콜라, Coffe, Milk, 각종 빵 등 그래도 구색은 다 갖추어 놓은 듯 없는게 없다. 피로에 좋다는 특유의 히말라야産 녹차를 한잔씩 마시며 준비한 점심을 먹고 나니 나른한 졸음이 밀려온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쪽빛 하늘과 신선한 공기 午睡의 참맛이 이런 걸까? 잠깐의 낮잠이 편했을까? 아침보단 몸이 훨씬 개운해 짐을 느낀다. 다시 배낭을 등에 메고 길을 오르기 3시간, 오늘의 첫 히말라야 山中 宿泊地인 Lama Hotel에 도착했다. (해발 2340m) Hotel 이라지만 깊은 山中이라 비비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통나무집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없이 Tent 신세를 져야 할 판이라, 누울 곳을 놓기엔 사치가 아닐까 싶다. 오늘 저녁식사는 Tivet 人인 Hotel 主人이 직접 만든 흰밥과 염소고기에 몇가지의 나물반찬이 곁들여진 현지식 食事과 구운감자로 때웠다. 그런대로 양념이 우리와 비슷 한게 먹을 만 했다. 山中의 밤이라 바깥기온은 쌀쌀하지만 큰 춥다. 暖房裝置가 되지 않은 방이라 방안인데도 寒氣가 돈다. 오리털 침낭에 누워 보지만 冷氣는 여전히 가시질 않는다. 억지잠을 청해본 히말라야 山中의 첫날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 2013년 5월 5일 넷째날

새벽6시, 山中이라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요리사 녀석들이 가져다 주는 野生허브차 한잔으로 모두의 아침을 깨워준다. 이름은 모르지만 무거운 머리를 맑게 해 주는게 정말 茶맛이 一品이다. 오늘은 海拔 3400m에 있는 Lang Tang 마을까지 登攀 한다고 한다. 어제의 고된 行軍으로 인해 실지로 몸들이 千斤萬斤이다. 아직 고소 증세는 나타나질 않아 多幸이란 생각이다. 아침부터 간간히 뿌려대는 빗방울이 심상찮지만 그래도 어찌하랴. 출발은 시작됐다. 다행히 1시간도 채 안되어 빗방울은 멈추었다. 하지만 간간히 얼굴을 스치는 찬바람은 살가운 매서움을 느끼게 한다. 깎아지른 높은 절벽 언저리에 매달려 있는 검은 들소 鬣바닥 같은 것 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채취한다는 그 有名한 Nepal 石漣이라한다. 정부에서 허가해 준 Honey Hunter 들이 아니면 아무나 채취할 수도 없었다. 돌아갈 땐, 꼭 한 병쯤은 사가지고 가리라는 위안으로 발걸음을 뒤로 했다. 가끔씩 야생 Yak(들소)들과도 遭遇하기도 하지만 덩치나 생김새에 비해 비교적 온순하게 보였다. 히말라야 표범도 가끔씩 나타난다는 가이드 말에 등골이 오싹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날까지 내내 표범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출발전에 “오늘부터는 어제와는 달리고 되고 힘든 山行이 될거라”는 주정수 山行隊長의 말이 실감나는 듯 하다. 점차로 걸음보폭이 좁혀지지 시작했다. 高度가 높아옴을 피부로, 때론 호흡으로 느낄수가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고소증 예방을 위한 藥을 服用하기 시작했음에도 한걸음 한걸음에 숨이 차 오른다. 지나치는 下行 Trekker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찌랴. 우리의 최종 目的地의 거대한 산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저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앞만 보고, 걷고 또 걷기를 반복했다. 이젠 주변의 景觀을 感想할 여유조차 생기질 않는다. 띄엄 띄엄 작은 집들이 한 채씩 보이기 시작했다. Lang Tang 마을이 가까워 옴을 알 수 있었다. 오후 4시, 600여년전 부터 조상들이 살아 왔다는 히말라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Lang Tang에 到着했다. 常住하는 200여 가구가 600여년을 살아 왔다고 하니 실로 믿기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親戚이요, 家族인 것 같았다. 오늘 저녁 宿所인 주인 아주머님은 주정수 山行隊長과는 구면인 듯 아주 친숙해 보였다. 남편과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나? 한국 사람과 거의 흡사한 피부와 얼굴이다. 겨울 雪山과 뜨거운 여름에 태운 듯한 검은 빛깔의 피부색을 제외하면 韓國人과 구별이 되질 않았다. 친절한 主人내외가 아끼며 두고 먹는다는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맛이 비슷한 “창이”라는 Nepal 傳統酒 그리고 장작불에 구운 빈대떡 몇 개와 군고구마 등을 내 놓았다. 오랜만에 높은 高度에서 섭취하는 알콜이라 금방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소나기 처럼 별비(星雨)가 쏟아질 것 같은 칠월 같은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하룻밤은 창이酒와 함께 그렇게 또 무르익어 갔다.

● 2013년 5월 6일 다섯째날

엿저녁 चाई酒에 취함인지, 엷은 살얼음을 걷어 낸, 氷河 녹아내린 차가운 물에 세수를 했음에도 머리가 계속 멎혀 왔다. 食前, 뜨거운 허브차로 추위를 이겨 내본다. 일행인 H사 김회장은 계속 머리아픔과 약간의 메스꺼움을 호소한다. 약간의 고소증 증세가 나타나는가 싶다. 다른 일행은 그리 고소증을 느끼질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영문을 모르는 총각 사진기자인 김부장은 모든 장면에 연일 셔터를 눌러대고, 눈치 빠른 Chief Cook인 Lamsa가 숙취 해소용으로 북어국을 끓여 내 온다. 오늘은 마지막 숙소인 Base Camp까지만의 600m정도의 Course라 모두가 아침부터 느긋한 出發의 여유를 부린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멀리 雪山들 사이로 빨간 햇살이 비집고 들어온다. 히말라야 雪山을 타고 내려오면서 불어대는 바람이 韓國 겨울의 北西風처럼 칼날같이 매섭다. 오늘부터의 山行은 단단히 겨울 채비를 차려야 한다. 귀가 덮히는 방한모자에, 겨울 파카를 걸치고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고서야 出發信號가 떨어졌다. 조금씩 오를수록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오는 광경들이 어제의 지나친 절경들과는 사뭇 다름을 느낀다. 해발 3700m. 왼쪽 너머로 흰눈에 둘러 쌓여있는 랑탕리릉(7234m)의 웅장한 꼭대기가 덮힌 구름사이로 우뚝 솟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주변의 히말라야 山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한다. 랑탕리릉 산 아래 자락으로 거대한 김승 氷河가 폭포처럼 웅장하게 펼쳐져있다. 몇십년 전에 비해, 무수한 人間의 발길과 지구의 온난화로 절반정도가 떨어져 나갔다는 가이드의 說明에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目的地가 가까워 올수록 1m가 넘는 樹木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강추위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는 說明이다. 길옆 언덕자락 사이로 하얀 꽃망울을 터트린 히말라야 에텔바이스를 하나하나 感想하면서 천천히 한발 한발 오르기 시작한다 4시간 30여 분만에 마지막 Base Camp인 해발 4000m의 Kyangjim Gompa 마을에 到着하니 우리一行보다 무거운 짐들을 여기까지 짊어지고 온 Porter들이 더 기뻐한다. 삶의 굴레(?)를 벗었음인지... 사흘 동안을 변변한 운동화도 걸치지 못한 채 쉬지 않고 짐을 옮겨준 그네들이 고맙다. 최소한 하루 반나절 이상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네들 중 가장 나이 어린 한 녀석에게 예비로 가져온 등산화 한 켤레를 쥐버렸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北 히말라야 너머 중국땅 Tivet에서 移住해 온 거의 Tivet 人들로 구성되어진, 50여 가구가 채 안되는 칸진 고평마을 우리一行의 마지막 히말라야 밤을 보내는 Base Camp이기도 했다. 따뜻한 언덕아래에 있는 木材로 지어진 자그마한 2층으로 된 Lodge에 여장을 풀었다. 오랜만에 태양열을 이용해 끓여낸 더운물에 샤워를 하고 나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게 잠깐 동안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 2013년 5월 7일 여섯째날

오전 8시. 늦은 아침을 먹고, 우리의 최종 目的地인 칸진리릉(4700m)봉을 정복(?)하기 위해 모두들 만전의 준비를 서둘렀다. Base Camp로 부턴, 비록 700m의 짧은 거리지만 고산증세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터라 모든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5000m의 高山지역에서는 氣候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시간 짜임이 중요했다. 최소한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만큼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H사 김회장을 뒤에 남겨둔 채 主領수 隊長 과 가이드를 선두로 오늘 만큼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머지 일행 4명이 출발했다. 정상가는 길은 垂直으로 된 길이 많다. 野生 YAK 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지그재그 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4000m가 넘는 地域이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다. 平常時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게 祝福”이란 걸 새삼 느낀다. 한 발짝 움직일수록 점차 호흡이 거칠고 힘들다. 가끔 한 번씩은 목구멍 아래로 숨이 꼭 차 오를 때면, 목구멍 아래로 내려간 공기가 다시 나오질 않는다면?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지만 이 거대한 히말라야의 품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신이 내게 준 마지막 祝福이 될 수도 있으리라. 갑자기 두 딸들이 보고 싶어짐은 나도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음일까? 고소증 적응을 위해 걸음 보폭을 최소한 줄여가며, 오르기 3시간여 만에 중간 기착지점인 칸진리(4550m)에 도착. 무수한 形形色色의 타루초(깃발)들이 칸진리 봉우리를 수놓은 듯 바람에 춤을 춘다. 불교를 신봉하는 Tivet 인들의 精神的 安息處인 타루초로 뒤덮인 칸진리 봉우리가 흡사 한국 시골마을 어귀에 있는 서낭당 같다.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미지근하게 데워져있는 바위에 앉아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주변의 6~7천 미터 高峰들의 景觀에 취해 그냥 넋을 잃고 말았다.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빠진 넋을 뒤로 한 채 다시 칸진리릉을 향해 서둘렀다. 여기서부터 正常까지는 능선을 따라 계속 오르막이다. 산 아래에서의 한 발짝 움직임은 여기서는 서너 발짝을 움직여야 할 정도로 호흡하기가 힘들다. 5000m 정도의 山이 이정도인데 8000m 이상의 히말라야 14좌 고봉들을 정복했던 대한민국 산악인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란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불과 200여m 남짓한데 ‘여기까지도 올라왔는데’ 라고 自我 위안을 하면서 아주 천천히 쉬어 오르기를 반복하면서 Base Camp를 출발한지 5시간 여 만에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종착지인 4700m 칸진리릉 정상에 올랐다.

만세~~ 만세~ 만만세~



CORPORATION EVER GREEN YOUTH REPORT

늘푸른장학회가 2회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성장할 저희 늘푸른장학회
격려와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칙개정안

정지총회

관리대장

회칙개정안

일시 : 2012년 7월 19일 해운대 소재 그린나래호텔

개정안 공고 : 지난번 열람된 회칙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회칙개정위원들의 심사숙고를 통해 회칙개정안이 확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주간의 열람을 통해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또는 전화주시면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개정이유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 및 조문 형식의 변경

● 개정 전 : 정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 중 본 회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장학회 설립 기금을 납부하고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추후 장학 기금 100만원 이상 납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년(年)정기후원금 납부자로 한다.

● 개정 안 : 정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 중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다음 아래의 사람으로 한다.

- ① 장학회설립기금을 납부하고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
- ② 추후 장학기금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년(年)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

제5조 3항 개정이유

회비의 수납의 편리 및 년납에 따른 부담의 완화, 많은 분들의 동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년 24만원 이상~년 12만원 이상

● 개정 전 : 회원의 회비는 년(年)후원금으로 하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의 년(年)후원금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정회원의 년(年)후원금은 년 24만원(월 2만원)이상으로 하되, 년(年)납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안 : 정회원의 년(年)후원금은 년 12만원(월 1만원)이상으로 하되, 년(年)납 및 월(月)자동이체 중 하나를 택일하여

납입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 개정이유

위원이 임의로 연임할 수 없고, 위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참여도 기타명예 등 감안해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위원의 성실성을 보장할 것 같다.

● 개정 전 :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총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장학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개정 안 :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총무단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장학운영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0조 5항 신설

● 신설이유 : 장학위원회의 직무 중 회원제명과 장학위원 제명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여 신설하기로 함.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① 본회 장학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 ③ 제반 사회봉사사업을 위한 의결
- ④ 본회의 제반안건
- ⑤ 장학위원 및 회원 제명 건(신설)



제11조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항 신설

● **신설이유** : 미비사항 보완하고, 장학위원들의 본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 위원회는 장학위원으로서 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및 임시회의)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회의가 상당히 많았다. 회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분기별 회의로 4차례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회의는 위원들의 식사찬조와 사무국(회장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회장님의 식사찬조가 많았고, 정기모임 또는 의결을 위한 회의의 경우 본회 경비로 지출하였다.

● **개정 전** : 임원회의는 정기적으로는 2회(6월, 12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개정 안** : 임원회의는 정기적으로는 4회(1월, 3월, 7월, 10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행사개최 신설

● **신설이유** : 본회 활동에 대한 입법 미비사항 보완

● **개정 전**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아래의 행사를 개최한다.

- ① 장학금 수여식 행사
- ② 회원 상호간 친목 및 우의를 위한 사업
- ③ 송년의 밤(全 회원 참석) 행사주관

● **개정 안**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아래의 행사를 개최한다.

- ① 정기총회

- ② 장학금 수여식 행사
- ③ 사회봉사 및 해외 장학사업
- ④ 회원 상호간 친목 및 우의를 위한 사업

제19조 (회계와 경과 규정) 2항 3항 신설

● **신설이유** : 자금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함

● **개정 전** : ① 조성된 모든 기금 및 년(年)정기 납부후원금은 재무가 총괄 관리하되, 위원장과 상임고문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의 공동명의로 부산소재 제1금융권에 예치관리 한다. 그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회와 관련된 모든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 납부한 장학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 **개정 안** : 자금의 운영은 총괄로 하되 세목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예탁 적립금 계좌
- ② 본회 회비 수납 및 운영비 계좌
- ③ 매년 회계년도 결산 후 적립금 계좌

특별한 사업수행 또는 재정의 악화시 임원회의 의결로 2항 매년 회계년도 결산 후 적립금계좌에서 임원회의의 의결로 일정비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장학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회칙개정안

정기총회

관리대장

정기총회

여석호 상임장학위원의 성원보고에 이어 조용현 회장의 개회선언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전창제 상임장학위원의 젊음과 평화를 상징하는 늘푸른장학회 회기 입장이 있었고,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를 끝으로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 김호정 상임고문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회원님들의 마음은 크지만,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지만 이제 창립총회 이후 지난 일 년 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된 점과 장학금 수여식을 비롯한 일년간 행사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조용현 회장님 이하 임원,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의 후원과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늘푸른장학회를 통해 보람과 회원간의 재미를 누리길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더 나은 장학회를 위해 회원님들의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현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늘푸른장학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회원 여러분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과 동참에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장학회의 정신적 멘토이신 김호정 상임고문님께 장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지난 일년 간의 행사에 대해 전반적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회를 이끌어온 임원들을 격려하시고, 더욱 알찬 장학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각종 보고 사항은 총무이사, 재무위원, 감사위원, 전문위원의 1차적 준비와 8월 21일 임원회의를 통해 통과된 내용입니다. 통과된 내용을 정기총회 시 편리를 위해 보고용 프리젠테이션을 이상진 총무이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추진경과보고 _ 이상진 총무이사

● 2010년 8월 지리산 합동 WORKSHOP

김호정(당시 행정대학원장님)과 각 기수(45, 46, 47기) 지리산 합동 워크숍에서 장학사업 및 사회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동문회결성준비를 위한 발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문회 회장 및 임원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 장학회설립을 위한 발기금 모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45기, 46기, 47기 중심으로 2010년 10월 이후 발기 기금모금 활동이 있었습니다. 김호정 원장님의 3천 3백만원의 기금기탁과 50명의 회원님들의 기탁으로 발기금 총액이 1억 1천 2백 8십만원이었습니다.

● 늘푸른장학회사업의 추진과정

- | | |
|------------------------------|-----------------------------------|
| ① 2011년 2월 - 7월 설립과정 | ② 2011년 8월 - 창립총회 준비과정 |
| ③ 2011년 8월 18일 - 제1회 장학금 수여식 | ④ 2011년 9월 1일 - 창립총회 회칙제정 및 임원단구성 |
| ⑤ 2011년 9월 1일 - 2012년 8월 31일 | |

● 現 2012년 8월 31일 늘푸른장학회 정기총회일



재무보고 _ 김경희 재무위원

● 총수입 : 48,364,433원 ● 총지출 : 25,169,710원

(8월 22일기준)

이월금	회비(찬조)	이자	총수입
9,108,726원	39,210,000원 (830,000원 포함)	45,707원	48,364,433원

● 회계장부와 계좌잔액 일치

① 장부상 잔액 : 23,194,723원

② 은행잔고 : 23,194,723원

● 수입분석

① 회비예상(예산수립 시 예정금액) : 32,000,000원

② 실제수납 : 36,759,000원

③ 현금찬조 : 830,000원

④ 물품 및 식사 기타 찬조 : 7,000,000원

● 회계 년도 내 지출예정 : 정기총회경비

보고 후 평 : 물품찬조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 수입에 합산하는 것을 여러 회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회 또는 장학회를 비롯한 여러기관에서도 물품찬조를 총 수입에 합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밀한 검토 후 내년 총회시에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임원회의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 _ 이은숙 감사위원

회칙 제20조 3항에 '회계년도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은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로 대체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감사는 늘푸른장학회의 회계년도 내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부처리 및 회계기입이 정확하게 되어있는가? 기장처리의 정확성
- 회계년도 내 지출이 예산의 의해 제대로 지출되었는가? 지출의 합법성
- 지출이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출 되었는가? 지출의 타당성
- 영수증처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증빙서류

위의 4가지 항목에서 면밀히 감사한 결과 영수증 처리 1건 미비 이외에는 모두 적합하게 지출되었음을 늘푸른장학회 감사위원으로서 보고합니다.





결과보고 _ 전기수 전문위원

회칙 제20조 예산 및 사업계획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정기총회 준비과정상 각종 집행에 대한 보고와 새로운 장학위원 선임이 늦게 진행된 관계로 차기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위한 임원회의 소집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이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고 회원님들의 사후 추진하는 현실적 방안을 회장님께 긴급안건으로 제안하였고, 회장님께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님들의 지지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2012년 제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을 위한 임원회의가 9월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별 예산 대비집행

사업명	예산 배정	지급 내용	비 고
장학사업	대학생장학금 10,000,000원	① 2011년 8월 : 3명 3,000,000원 ② 2012년 2월 : 5명 4,500,000원 ③ 2012년 8월 : 5명 4,500,000원	• 총회 전에 지급된 1회장학금 • 회계 연도개시전의 지급된 항목 - 사후승인 장학 증서 및 부대경비 325,000원
	청소년장학금 2,000,000원	미집행 사업	
사업결산 : 12,000,000 - 9,325,000 = + 2,675,000원			
빈민국 후원 (아동교육)	2,000,000원 배정	① 워드 - 아시아 캄보디아구호현장 ② 전체 찬조지급 2,000,000원 상당의 약품/문구류	2012년 1월 6일 - 11일 상임고문님, 회장님 참가 하신분 의 찬조로 사업집행
사업결산 : 예산절감액 + 2,000,000원			
사회봉사사업	2,000,000원 배정	① 월동 김장사업 3,000,000원 지출 ② 상임고문님 200,000원 별도후원	예산초과 집행 1,200,000원
사업결산 : 2,000,000 - 3,200,000 = -1,200,000원			
회원행사 : 회원결속력행사	3,000,000원 배정	① 송년의 밤 ② 합동산행대회	① 1,445,100원 ② 1,048,000원 ③ 현물찬조 예산절감 + 506,900원
사업결산 : 3,000,000 - 2,493,100 = + 506,900원			
회원 소식지	900,000원 배정	소식지 희망 제작 2,000,000원	초과집행 1,100,000원
사업결산 : 900,000 - 2,000,000 = - 1,100,000원			
창립총회	사후승인	2,892,660원 집행	찬조
임원회의	600,000원 배정	1,296,950원 집행	찬조 / 20차 회의 초과지출 - 696,950원
경조사비	1,000,000원 배정	950,000원 집행	예산미사용 + 50,000원
예비비	2,000,000원 배정		초과집행총당 2,000,000원



● 회계결산항목

사업명	예산 배정	지급 내용	비 고
2011년 9월 1일	적립금	100,000,000원	적립예치
	이월금	9,108,726원	
예산총액 /집행	예산총액	2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집행 25,169,710원 • 집행예정 정기총회
	예산집행	19,277,050원	
	사후승인	5,892,660원	
	집행예정	정기총회	
사후승인액 5,892,660원	창립총회개최 前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장학금 • 창립총회 	3,000,000원 2,892,660원
수입 비용분석 8월 22일 기준	총수입	이월금 9,108,726원	48,364,433원
		회비 38,380,000원	
		찬조 830,000원	
		이자 45,707원	
	총지출	계좌개설부터	25,169,710원
잔액		23,194,723원	



회칙개정안 상정 및 임원구성 _ 조용현 회장님

회칙개정안 상정하여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4조 1항 정회원

- **개정 전** : 정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 중 본회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장학회 설립기금을 납부하고,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추후 장학기금 100만원이상 납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년(年)정기후원금납부자로 한다.
- **개정 안** : 정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 중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다음 아래의 사람으로 한다.

- ① 장학회설립기금을 납부하고,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
- ② 추후장학기금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년(年)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

제5조 3항 회비

- **개정 전** : 회원의 회비는(중략), 정회원의 년(年)후원금은 년 24만원(월 2만원) 이상으로 하되, 년(年)납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안** : 정회원의 년(年)후원금은 년 12만원 이상으로 하되, 년(年)납 및 월(月)자동이체 중 하나를 택일하여 납입한다.



회칙개정안

정기총회

관리대장

제7조 임원의 임기

- 개정 전 : 임원은(중략),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안 : 임원은(중략),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5항

- 개정 전 : 장학위원회의 직무 1항 - 4항
- 개정 안 : 5항 신설, 장학위원 및 회원 제명 건

제11조 11항

- 개정 전 :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항 - 10항
- 개정 안 : 11항 신설. 위원회는 장학위원으로서 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가되는 위원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 개정 전 : 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2회 (6월, 12월)
- 개정 안 : 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4회 (1월, 3월, 7월, 10월)

제17조 행사개최 4항

- 개정 전 : 장학위원회의 행사개최
- 개정 안 : 4항 회원상호간 친목 및 우의를 위한 사업(입법 미비사항보완)

제19조 회계와 경과규정 2항 - 3항

- 개정 전 : 장학위원회의 회계와 경과규정 2항 - 3항
- 개정 안 : 2항 신설. 자금의 운영은 총괄로 하되 세목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예탁적립금 계좌
 - ② 본회회비수납 및 운영비 계좌
 - ③ 매년 회계년도 결산 후 적립금 계좌
 3항 신설. 특별한 사업수행 또는 재정 악화 시 임원회의의 의결로 2항 매년 회계년도 결산 후 적립금계좌에서 임원회의의 의결로 일정비율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임 장학운영위원 선출 및 공지사항

● 신임 장학운영위원 선출

신임 장학운영위원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장학운영위원 회칙 「제11조에 근거하여 회원의 추천과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에 따라 임용순, 이승운, 구광모, 류희연, 김창수, 강주택, 전창제님이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장학운영위원회 조직으로는 위원장 조용현, 총무이사 이상진, 전문위원 전기수, 감사위원 이은숙, 재무위원 김경희(47기), 상임장학운영위원 김윤도, 김태화, 여석호, 최규원, 임용순, 이승운, 구광모, 김창수, 강주택, 류희연, 전창제가 선출되었습니다.



● 감사패 및 회원증수여식

감사패 송귀호님, 공로패 박재민님, 박우곤님, 김수용님, 해외장학기금 기탁증서 이창섭님(필리핀세부지역 수산고등학교 실습용 엔진 2점(900만원 이상의 현물), 장학기금기탁증서 김종배님 46기 초대 회장님(200만원 기탁)께서 수여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발기금모금 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 회비 성격 이상의 특별형식으로 장학회에 기탁하신분(해당됩니다.)(참고로 처음 발기금을 내실 때 상황이 동문회 및 장학회 창립총회 이전의 준비단계이므로 장학기금기탁증서가 준비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 하시고, 발기금모금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내어 장학기금기탁증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회원증 수여는 명예회원 이승근님, 유이호님이 수여하셨고 특별회원 조항숙님, 최복춘님, 박현주님, 황금자님이 계십니다.

● 폐회 및 공지사항

정기총회를 위해 찬조하신 분

- 조용현 회장님 와인 및 홍지천 120만원
- 최규원 장학위원 - 고급 타올 세트 (70세트)
- 박기조 산악회회장 - 20만원찬조 + 뒷풀이찬조 (23만원)
- 임용순 장학위원 - 행사진행 소품일체보조
- 이승운 장학위원 - 홍지천 250만원
- 김동영 47기 회장 - 20만원 찬조
- 이은숙 골프회회장 - 20만원 찬조
- 2부 공연행사 - 김창수 장학위원

● 공연에 수고해 주신 분들

- 김종일 사장님 - (행사내내 색소폰연주)
- 최춘광 노래하는 미술사
- 조희장님 두 따님 - 바이올린연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진정성있게 전달할까와 합리적 지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음 행사 때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겠습니다. 정기총회를 위해 앞에서 이끌어 주신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조용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체 일정과 계획에 맞춰 노력하신 임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사회를 보신 여석호 장학위원과 김창수 장학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칙개정안

정기총회

관리대장

관리대장



제2기 임원 관리대장 | 2012. 9. 1 ~ 2013. 8. 31 |

NO	소속	직위	성명	구분	발급(NO)	비고
1	(주)영진 선박금융	대표이사	조용현	회장	1	
2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호정	상임고문	2	
3	골드웰잉그리쉬 아카데미	원장	전기수	전문위원	3	
4	대한종합스틸(주)	이사	이은숙	감사위원	8	
5	리바트 부산 네오스	실장	김경희	재무위원	5	
6	(주)비봉	대표	김윤도	상임위원	6	
7	(주)웅진통신	대표이사	김태화	상임위원	7	
8	대흥기업	대표	강주택	상임위원	37	
9	(주)코웰스	대표이사	여석호	상임위원	9	
10	대한디자인	대표	임용순	상임위원	26	
11	남산가스 설비	대표	최규원	상임위원	11	
12	(주)다물	이사	김경희	상임위원	12	
13	티에스아키텍처	CEO	이승운	상임위원	48	
14	세무사류희연사무소	세무사	류희연	상임위원	19	
15	씨에스마린	대표	전창제	상임위원	15	
16	미리벌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창수	상임위원	40	
17	(주)동우산업	대표이사	구광모	상임위원	28	
18	예원디자인	대표	이상진	총무이사	14	





제2기 정회원 관리대장 | 2012. 9. 1 ~ 2013. 8. 31 |

NO	소속	직위	성명	구분	발급(NO)	비고
1	(주)오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창섭	정회원	16	
2	부산가정법원	총무과장	강희숙	정회원	17	
3	청천법무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고점성	정회원	18	
4	해운종합렌탈(주)	대표이사	박기조	정회원	20	
5	부산시의회/주백산금속	부회장/대표	백종헌	정회원	21	
6	(주)오투랜드	전무	서연자	정회원	22	
7	북부산세무서	서장	안광원	정회원	23	
8	금정구청	구청장	원정희	정회원	24	
9	(주)BK	대표이사	이봉원	정회원	25	
10	(주)스포캐믹	대표이사	최태식	정회원	27	
11	(주)청류산업	상무이사	김정훈	정회원	29	
12	동서인테리어	대표	김흥재	정회원	30	
13	금정구청애인복지관	관장	박재민	정회원	31	
14	현대후렘	대표	오일동	정회원	32	
15	JL테크	대표	이동근	정회원	33	
16	부산진 시장	번영회 회장	권택준	정회원	34	
17	법무법은 좋은	변호사	임호택	정회원	35	
18	녹산다인회	회장	정영섭	정회원	36	
19	영상사업	대표	김수용	정회원	38	
20	동래할매파전	대표	김정희	정회원	39	
21	지방법인봉사단	팀장	안지혜	정회원	41	
22	46기 최종운		최종운	정회원	42	
23	홍익 법무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임경남	정회원	43	
24	메트라이프	FRS	김나윤	정회원	44	
25	(주)대원로유안	회장	방준형	정회원	60	
26	아우라지	대표	주은숙	정회원	65	
27	양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귀호	정회원	13	



회칙개정안

정기총회

관리대장



제2기 명예회원 관리대장

| 2012. 9. 1 ~ 2013. 8. 31 |

NO	소속	직위	성명	구분	발급(NO)	비고
1	(주)프린테크	대표이사	김덕영	명예회원	45	
2	우경 재단 복지센터	센터장	석인선	명예회원	46	
3	다대 바다횃집	대표	이배의	명예회원	47	
4	메트라이프	FRS	이행진	명예회원	49	
5	셀리파인부산총판	대표	추소의	명예회원	50	
6	FD AMC(주)	대표이사	윤철	명예회원	51	
7	동신참치	대표	김경호	명예회원	52	
8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교학실장	민선기	명예회원	53	
9	부산경남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	이승근	명예회원	54	
10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행정계장	박우근	명예회원	55	
11	동부생명보험(주)	부장	김홍조	명예회원	56	
12	동아대학교의료원/치과	교수	김철훈	명예회원	57	
13	43기 회장		김석수	명예회원	59	
14	풀무원		성민주	명예회원	62	
15	43기		박명희	명예회원	63	
16	(주)세종기술단	상무	김태완	명예회원	68	
17	유림환경	대표	류이호	명예회원	72	
18	가나토목건설	회장	김종배	명예회원	85	
19	(주)두잉건설 대표이사	대표이사	천병환	명예회원	86	
20	VIP홍콩	대표	이나금	명예회원	87	
21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행정실장	박난희	명예회원	4	
22	침례병원 장례식장	대표	박선욱	명예회원	10	





제2기 특별회원 관리대장

| 2012. 9. 1 ~ 2013. 8. 31 |

NO	소속	직위	성명	구분	발급(NO)	비고
1	46기		임정숙	특별회원	58	
2	서울대 병원 간호사	간호사	김희진	특별회원	61	
3	전언주		전언주	특별회원	64	
4	필리핀		산디	특별회원	66	
5	필리핀		버드	특별회원	76	
6	신도신성 상사	대표	양석곤	특별회원	69	
7	삼정정보통신	대표	정판효	특별회원	70	
8	장전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	최영남	특별회원	71	
9	송백해운	대표	박우곤	특별회원	73	
10	꽃향기 드림		조향숙	특별회원	74	
11	골드웰 잉글리쉬 아카데미	원장	황금자	특별회원	75	
12	티니텔리 어학원	원장	최복춘	특별회원	76	
13	디자인 주	대표	박현주	특별회원	77	
14	밀양상회	대표	도노기	특별회원	78	
15	신근식 산부인과	원장	신근식	특별회원	79	
16	현대의원	원장	이호준	특별회원	80	
17	양의종소아청소년과	원장	양의종	특별회원	81	
18	이복동		이복동	특별회원	82	
19	부산은행	지점장	강경웅	특별회원	83	
20	LA다저스 한국 수퍼바이저		안병환	특별회원	84	
21	이재선		이재선	특별회원	88	
22	씨유마트	대표	김명희	특별회원	89	
23	부산클라리넷 콰이어	단원	오나경	특별회원	96	
24	신세봉건설	대표이사	정병원	특별회원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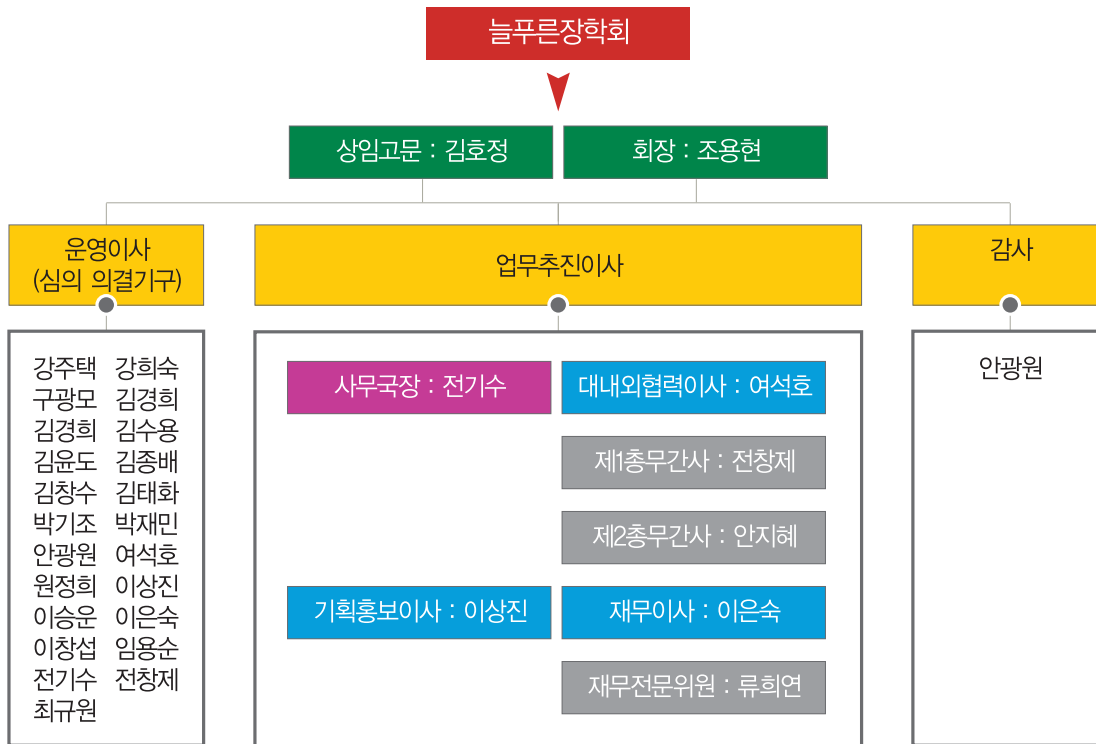
회칙개정안

정기총회

관리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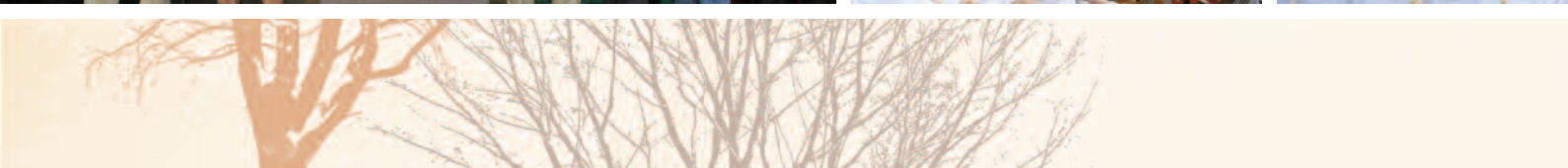
위원조직도 | 2013. 9. 1 ~ 2014. 8. 31 |





CORPORATION EVER GREEN YOUTH ADVERTISING

늘푸른장학회가 2회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성장할 저희 늘푸른장학회
격려와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우는 고품질 · 생산량극대화 · 과학영농실현
작물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구 광 모



첨단 농업기술의 선봉
|주|동|우|

● **생/산/품/목**

양액시스템 · 관비시스템 · EC, 일사센서
 EC, pH, 일사 컨버터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 **취/급/품/목**

관수자재 일정 · 양액재배 자재일절 · 양액재배 시설시공
 온실환경제어 시스템 · 무인방제시설 · 스프링클러

● **시/공/품/목** 행인거트 · 양액시설



본 사.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85번길 182번지 연천공장. 경북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520-5
 순천공장.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723 인계농동단지 창원연구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7-1
 Tel. 055)329-5488 Fax. 055)329-5477 Mobile. 010-7561-6088



四大를 이어온
동래의
전통 음식!



동래할매파전
DONGRAE HALMAE PAJUN

70년전통을 이어가는 동래할매파전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사로잡는 다양한 메뉴를 만나보세요.

대표 김정희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367-2번지

Tel. 051)552-0791~2 Fax. 051)552-0791 Mobile. 010-3872-3579



(주)가이아 영남지사

GAIA YEUNGNAM OFFICE CO., Ltd.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

음식쓰레기 건조 감량기!



학교 · 음식점 · 병원용

모델명. GC-100(1일 99kg처리)



공동주택용(RFID 장착)

모델명. GS-100H (1일 99kg처리)

**음식쓰레기 건조
결과물**



투입물 ↓



결과물 ↓

**사료화·비료화·연료화
사용가능합니다.**

● (주)가이아 기계의 장점

- 제품의 다양성 : 50kg~100ton까지 가능한 다양한 기계와 기술
- 최대 생산실적 : 1992년 설립 이후 선진국(프랑스 · 영국 · 스위스 · 미국 · 캐나다) 등에 판매된 가이아 건조기가 현재 전 세계에서 1일 1,000톤의 음식물을 건조 감량함
- 최 고 의 기 술 : R&D와 수출로 검증된 세계최고의 기술 (특허 42종)
- 신 속 한 A / S : 신속하고 친절한 A/S
- 믿을 수 있는 기업 : 20년간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만을 생산해 온 많은 know-how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업!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발전하는 기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로 94번길 14 203호 제품문의. 051)556-3309

Tel. 051)556-3309 · 3308 Fax. 051)556-3301 E-mail. khancorea@naver.com

믿음 하나로 사랑을 짓는 기업!

혁신적인 기술! 완벽한 시공으로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서비스!
조형미를 갖춘 미래형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종배**

- 2013년 남산동청년회 명예회장
- 장전3동 청년회 6대 회장역임
- 현, 남산동주민자치위원
- 해운대 로타리 여명라이온스



가나토목건설

GANA Civil-Engineering Construction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4-8번지 Tel. 055)362-4545 · 375-4989
Fax. 055)365-8589 Mobile. 011-858-4112

SWITZEN
KCC 스위첸

사직점

조합장 박명희

스위스의 자연이 스위첸의 생활이됩니다.

사직을 더 크게 누리는 중심 입지입니다.
첨단으로 설계하고 자연으로 마감한 미래형 행복설계 아파트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사직1동 17-1)
서진빌딩3층 사직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Tel. 051)501-9520 Mobile. 010-6674-3007





스트레스리스



오직, 세계기준의 안전한 침대는 에이스 뿐입니다.

대표 김경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71-1번지 Mobile. 010-3346-1777
Tel. 051)646-7121 · 634-2014~5 Fax. 051)644-3300





씨제이마린

대표 전 창 제

부산광역시 중구 총장대로 5번길 67
정원빌딩 202호
Tel. 051)468-0341 Fax. 051)241-3362
Mobile. 016-860-0341



자 / 연 / 산 / 회 / 전 / 문

밀양상회

신동아시장 1층 25·26호

대표 도 노 기

Tel. 051)246-5216 · 241-4281
Mobile. 011-864-5216

〈 아나고 · 광어 · 히라스 · 도다리 〉
게르치 · 잡어 · 가오리 · 도산매 〉

* 매월 2째 · 4째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design_JOO

디자인컨설팅 / CI&B,개발 / 카탈로그 / 브로슈어 / 인쇄광고

대표 박현주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4가 18-12번지

Tel. 051)441-2692 Fax. 051)441-2693 Mobile. 010-5561-6779



미리벨종합건설(주)

WELLBEING LIFE WELLBEING HOUSING

공장 | 주택 | 상가 | 원룸 | 각종리모델링 | 조립식건물

대표 김창수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9-4(양산 공설운동장 옆)

Tel. 055)363-0459 Fax. 055)365-0454

Mobile. 010-9311-8286



사업의 협력자로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세무사 안광원 | 동래지점 대표세무사 류희연 | 북부산지점 대표세무사 송창섭 | 사상지점 대표세무사 김영호

서로 신뢰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신명나는 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
연산메디파크 5층 (동래지점)
Tel. 051)852-9100 Fax. 051)852-9109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신고 | 가장 및 경영 컨설팅
조세관련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리 | 각종 세무조사 대리 | 기타 조세관련 신고대리

신근식 산부인과 Dr. Shin's Womens Clinic

www.shin0339.com

원장 신근식

- 메리놀병원 산부인과 외래과장
- 문화병원산부인과장
- MBC임신육아교실강사
- 부산광역시 산부인과학회 부회장 역임
- 현. 신근식산부인과의원 원장 영도구의사회 회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청학시장앞)
Tel. 051)412-0339 Fax. 051)413-6579

산전진찰 및 야간분만
부인과 대 · 소수술(질성형수술, 소음순수술, 요실금수술 등)



대한중합스틸주는 세아베스틸의 특수강판매 1차 협력업체입니다.
 항상 세아베스틸 정품 소재만을 취급합니다. 소형 압연소재에서 대형 단조소재까지
 다양한 소재의 재고를 확보하여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중합스틸 | 주 |

이 사 이 은 숙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26-2(새벽로 86)
 Tel. 051)323-4271 Fax. 051)322-4362

*** 취급품목 ***

- 합 금 강 : SCM 415, SCM 420, SCM 435, SCM440, SNCM 220(21종)
 SNCM 420(23종), SNCM 439(8종), SNC 815, SMC 836
 탄 소 강 : SM20C, SM25C, SM30C, SM35C, SM45C, A105, ST52-3
 금형공구강 : SKD11, SKD62, SKT4 기타 외
 특수용도강 : SACM645, SUJ2 기타 외



청천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고 점 성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302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611-7200
 Tel. 051)502- 9900 Fax. 051)502- 5113
 Mobile. 010-3831-8080

-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 교환) 근저당권 · 전세권 설정
-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기(설립, 임원변경, 상호변경, 본점변경)
- 민사사건 · 형사사건 · 가압류 · 가처분 사건
- 가사 사건(개명,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 · 공탁(변제, 집행, 보증) · 성년 후견인
-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작성 · 제출

YsU 영산대학교

Youngsan University

교수 / LINC사업단 **여 석 호** M. 010-7258-7777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양산캠퍼스) www.ysu.ac.kr
Tel. 055)380-9519 Fax. 055)380-9679



(주)신세봉건설

SIN SE BONG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정 병 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21-14번지 화신빌딩 301호

Tel. 051)558-3234~5 Fax. 051)558-3235

Mobile. 010-3834-4721 E-mail. lyc0590@lycos.co.kr



동서인테리어

— DONG SEO INTERIOR —

대 표 **김 흥 재**

Tel. 051)513-1441 무료전화. 080-333-8787

Mobile. 010-8554-8787 E-mail. ds8504@hanmail.net

동서인테리어에서는 견적 시 가상현실 컴퓨터그래픽으로 공사완료 후의 효과를 느끼시고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

Geumjeong-Gu Rehabilitation Center

저희 금정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1년 2월에 개관하여 지역장애인들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 장 박재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77 (서1동) www.gjrc.or.kr
Tel. 051)523-0100 Fax. 051)523-0024 E-mail. gjrc@hanmail.net

* 후원금 입금계좌 안내 *
부 산 은 행 073-01-034726-1
새마을금고 9002-1397-5811-3



대흥기업

(주)태산엔터프라이즈

수입 축산물 검역 대행(소, 돼지, 닭) 수·출입업



사훈

- . 생각은 올바르게
- . 생활은 성실하게
- . 성공은 노력으로

대 표 강 주 택 Mobile. 010-3855-1449 www.대흥기업.net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0-19번지 서정빌딩 3F
Tel. 051)462-0251 Fax. 051)464-3957
E-mail. daeh0252@daum.net



PHARMICELL
NO.1 Stem Cell Therapy
파 미 셸

건강한 삶,
생명연장의 꿈
파미셀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줄기세포를 보관하세요

Bank Your Cell, Bank Your Life
Korea No.1 Bio Insurance

줄기세포(Stem Cell)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으며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 우수한 만능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처럼 노화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할때 미리 보관되어져야만 향후 발병시 본인의 건강한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오염된 세포는 줄기세포치료제 생산이 제한되어 치료 기회를 상실 할 수 있기에 건강할때의 보관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가입하듯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2011년 7월 세계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탄생시킨 '파미셀'에 당신의 건강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스메디셀코/부산사업단장 **김 경 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e센텀클래스원 218호
Tel. 051)507-4137 Fax. 051)507-4140 Mobile. 017-554-4504



김스피부과(원장 김형주 님)



비엔티비즈니스(대표이사 김진준 님)



민현주여성의원(원장 민현주 님)



연세미소치과(원장 이봉희 님)



www.ywint.com
전문건설업(종목)
실내건축(인테리어)
면허보유회사

인테리어 전문회사
부산에는「예원디자인」이 있습니다

예원디자인의 작품은
명품이 됩니다.

의료공간 | 사무공간 | 주거공간 | 교육공간 | 공공기관

최고의 디자인은
예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대표이사/실내건축가 이상진

1997 예원디자인설립
전문 건설업(실내건축 인테리어) 면허 취득

한국 실내 건축가협회(KOSID) 정회원
세계 실내 건축가 연맹(IFD) 정회원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KID) 정회원
부산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BIDA) 정회원
한국 실내 건축가협회(KOSID) 부산·울산·경남지회 이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실내건축대전 심사위원 위촉
BIDA 대전 운영위원
KOSID 실내건축대전 심사위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겸임교수 역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 협동 협약
영산대학교 산학 협동 협약
경남정보대학 산학 협동 협약

부산인테리어 디자인협회 작품수록
부산디자인단체 총연합회 연합전 작품수록

부산인테리어 디자인협회 감사패 수여
한국실내건축가협회 표창패 수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APMP 과정수로
부산은행 우수기업 선정

YEWON www.
Since 1997 Medical & Dental Clinic Interior Design **design** **ywint.com**

Tel. 051)323-0414

Fax. 051)323-0424

Mobile. 010-9219-0455



(주)영진선박금융
YOUNG JIN MARINE BUNKERING CO., LTD.

현대오일뱅크(주) 해상금융대리점



(주)이앤이엔터프라이즈 | (주)창성해운 | (주)은희마린 | 엘앤비마린주식회사

차별화된 가격과 서비스, 신속정확하고 정직한 전달로
고객이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조 용 현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5 (중앙동4가 78-2 이앤이빌딩 2층)
Tel. 051)246-4400 Fax. 051)255-4004 Mobile. 011-576-7311





따뜻한 사랑 나눔 _ 후원 계좌번호 : 늘푸른 장학회 조용헌 부산은행 098-12-056604-3

모금방식은 1구좌 년(年) 12만원 (월 1만원) 이상으로하며 회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전화

- 사무국장 전 기 수 (골드웰 잉글리쉬 아카데미 원장)
T. 010-6595-5592
- 대외협력이사 여 석 호 (영신대학교 교수)
T. 010-7258-7777
- 기획홍보이사 이 상 진 (예원디자인 대표)
T. 010-9219-0455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usan.apmp>



사무국 찾아오시는 길



헬퍼스 하이 효과

실제로 남을 도우며 느끼게 되는 최고조에 이르기분 즉 ‘헬퍼스 하이’ (Helper's High)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뒤에는 거의 모든 경우 심리적 포만감 즉 ‘하이’ 상태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